



Ch'ŏngnyŏn Saenghwal

# 청년생활

7
1959

# 천리마로 달리는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



↑ 제3 사업소 골재 채취 직장 청년들의 골재 채취 운반 작업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자들에게**

당의 붉은 전사의 긍지 높이 공사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더욱 더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라!

혁명적 열정과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며 기술 기능을 높임으로써 공사를 가일층 촉진시키라!

후손 만대에 물려 줄 발전소의 모든 시설과 구조물을 반석 같이 튼튼히 만들며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편지에서)



← 암반 굴착에 한창인 리 수복 영웅 브리가다원들 (제一 사업소 굴착 직장에서)



↑ 제3 사업소 혼합 직장 청년들은 벨트로라 설치하고 있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 청년생활

차 례







7
(118)
1959

편집 위원 리 홍종 (주필)
전 성근 박 춘실 지 장린
김 상민 송 선경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1959년 7월 1일 인쇄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1959년 7월 10일 발행
(값 30 전 ㄱ-30430) 105,000부 발행

# 언제나 그이의 모습을 그리며



전 희

나에게는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 소년 중대에서 학습장으로 쓰던 작은 수첩이 있다. 나는 이 수첩을 볼 때마다 수상님과 같이 겪은 어려웠던 일들을 회상하게 되고 눈 앞에 떠 오르는 빙긋이 웃으시는 수상님의 얼굴을 본다. 장백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수개 사단의 왜군과 위만군에게 포위되여 있었다. 하늘에는 놈들의 정찰기가 떠 돌았다. 우리는 깊은 계곡에 들어 갔다. 하늘을 가리우는 수림과 여러가지 넌출들로 계곡은 대낮에도 컴컴하였다

망원초들이 먼 곳에 나가 적을 감시하고 기본대에서는 불도 연기 나지 않는 삭정이로 피웠고 도끼 소리는 일체 엄금하였다. 그것은 흔적을 감춤으로써 적들을 허탕치게 하고 우리의 력량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멀지 않은 곳에 적을 두고 이렇게 인내성으로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쌀이 없었다. 당번 동무들이 적의 포위 속에서 삽지, 버붕개, 송곳 나물 등을 뜯어 오는 것이 유일한 량식이였다. 어떤 날에는 놈들의 경계가 갑자기 심하여지군 하여 그것마저 뜯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대오에서는 환자가 나기 시작하였고, 우리는 모진 피로와 배고픔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피곤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이는 수상님이시였다. 내가 처음에 말한 빙긋이 웃으시는 수상님의 모습은 바로 이때 나의 머리에 깊이 새겨진 표상이다.

수상님이 계시던 귀틀집은 우리 소년 중대의 바로 곁에 있었다.

수상님은 우리와 같이 끼니를 건너는 때가 많고, 우리 보다 낫지 않게 생활하시건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작전을 연구하신다, 간부들과 사업을 조직하신다 잠시도 편히 쉬지 못하는 몸이신 데도 어데서 오는 기력인지 그냥 빙긋이 웃으시며 아침마다 조국의 하늘을 향하여 조기 체조도 하시고 밤늦도록 종이로 가리운 등'불을 마주 앉아 일하시는 것이였다. 그렇게 바쁘시지만 자주 중대와 소대들을 돌아다니시며 배 고픈가, 인내성을 가지고 왜놈 몇 개 사단쯤 물리칠 수 없겠는가고 일일이 물으시며 우리를 고무하여 주시였다.

소년 중대에 오셔서는 우리를 빙 둘러 앉히고 《일제를 없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혹은 《조국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하고 첫 마디를 떼시고는 슬쩍 이야기를 무훈담에로 끌어 가시군 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사이 수상님의 이야기에 끌려 들어 흥분도 하고 격분도 하면서 배 고픈 것도 잊고 말았다. 무훈담에 나오는 용사들은 어떤 곤난이든지 다 극복하고 자기의 원쑤를 쳐부신다. 이야기를 다 하시고는 《자, 이젠 일제를 없어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하고 수상님은 우리에게 묻군 하시였다. 그러면 어린 동무들은

《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단결하는 것입니다.》

《꼭 이기고야 만다는 굳은 마음입니다.》 하고 저마끔 대답하였다.

수상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모든 대답을 종합한 것이라고 하면서 결론을 지어 주셨다.

수상님은 환자들에게 가서는 친히 그들의 맥을 짚어 보고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시였다. 산야에서의 치료법과 약초에 대하여 제일 잘 아시는 것도 역시 수상님이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수상님이 왔다 가시면 모두가 활기를 띠면서 수상님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곤난이 왜 자기들에게는 이렇게 클가고 생각하게 되였다.

실로 수상님은 우리 힘의 원천이였다. 그때에 있은 일이 기억된다. 련락병이 수상님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미시'가루를 한 식기 풀었다. 수상님은 련락병의 지성에 감탄하셨는지 오래 동안 그것을 들여다 보더니 련락병을 쳐다 보며 환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련락병은 그때만은 수상님의 분부를 실행하지 않고 불만스레 그 앞에 서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 전체에게 있어서 수상님의 건강을 보살펴 드린다는 것은 첫째 가는 의무였던 것이다.

련락병이 움직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 채린 수상님은 빙긋이 웃음을 띠우시며 친히 그릇을 들고 일어나 환자들을 찾아 갔다. 물론 환자들은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목이 메여진지 말은 못하고 두 손을 허우적기듯하는 것을 보며 온 몸이 찡 울림을 느꼈다.

한 그릇의 미시'가루물,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그릇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수상님의 뜨거운 마음은 온 조국 강산을 덮고도 남을 것이다. 혁명의 한길에서 이렇게 굳게 단결된 대오를 그 어떤 원쑤들이 당해 낸단 말인가……

그로부터 며칠 지난 후 우리는 수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놈들의 포위를 물리치고 놈들의 한 개 부대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수상님께서는 포위망이 풀리기 시작하면 어느 모퉁이를 때릴 것인가를 미리 짜 두셨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때에 새겨진 수상님의 모습은 그후의 수 없이 많은 전투들에서와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자주 내 눈 앞에 떠올라 기쁜 일이면 그 인자하신 웃음으로 반겨주고,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나의 두 손에 불굴의 힘을 쥐어 주면서 나를 고무하여 주는 것이다.

(시)

# 샘골 마을에서의 김 일성 장군

박 승 수

이것은 1936년 늦 가을
장백현 샘골에서 있은 일…
산협에 끼여 앉은 이 마을에
빨찌산들이 들었다.

늙은이도 젊은이도
벌거 벗은 어린 것들도
모두다 만세 부르며 뛰쳐 나섰다.
빨찌산을 얼싸 안고 눈물 흘린다.

마중 나온 어린이를 안으시고
장군은 먼저 로인들께 인사하시고
군중의 환호 소리에 실려
마을 어구에 들어 서시더니

장군은 문득 걸음을 멈추셨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여기, 어데 있습니까?
송 로인의 묘가…》

둘러 섰던 마을 사람들
눈들이 둥그래졌다.
벌써 아득한 5년 전의 일,
기억에서 사라져 가는 일이었거니

아들이 빨찌산이라고
왜놈에게 무참히 총살 당한
한 로인의 묘를 물으시는데
어찌 그들이 놀라지 않았으랴!

(우리의 장군님 신출 귀몰만이 아니고
세상 일 환하게 꿰뚫어 보시는구나)
마을 로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장군께선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동무들! 잊었소?
예가 그의 고향이요
3년 전 곰골 전투에서 전사한
용감한 송 동무, 그의 아버지가 계시던 곳…

—샘골 마을의 나의 아버지께
원수를 갚았다고—전해 달라며
신신 당부하던 송 동무의
그 유언을 나는 언제나 잊지 않았소》

밋밋한 언덕 푸른 잣나무
로인의 묘 앞으로 찾아 오시어
장군은 몸소 간적하고 계셨던
송 동무의 유물을 파묻으시더니

《할아버지, 아들은 정말 잘 싸웠습니다》
마치 산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듯…
가볍게 떨리는 장군의 목소리
뺨에 흘러 내린 뜨거운 눈물…

사람들은 더는 참지 못했다.
로인들은 어린애들처럼 통곡을 했고
녀인들은 흐느껴 울었다.
빨찌산들도 주먹으로 눈물 닦고…

서러워 운 것이 아니다!
비애의 눈물이 아니다!
이것은 감격의 눈물
충성의 맹세였다.

삼천만의 수령, 우리의 장군님이
이렇듯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거늘
우리 어찌 승리하지 못하랴
우리 무엇을 아끼랴!

젊은이들은 당장 그자리에서
빨찌산 대오에 들어 섰고
로인들은 눈물 흘리며 말했더라
이제는 죽지 않고 살아 나가겠다고

장군의 이러한 사랑으로 하여
빨찌산은 불패의 군대였고
장군의 이러한 사랑으로 하여
조선은 불굴의 영웅이였다.

—1959, 2—

시집 《붉은 기'발 휘날린다》의 중에서



# 당 축산 정책 관철에서 청년들은 앞장에 서자!



현시기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서 중심 고리의 하나이다.

문—최근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는 축산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전 당적, 전 인민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의의는 어데 있는가?

답—그것은 첫째로,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식량과 주택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 조건에서 인민들의 축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데 있다. 둘째로 축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축력과 비료를 원만히 해결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데 있다. 세째로, 축산업을 발전시켜 식료 및 생활 필수품 공업에 대한 중요한 원료를 공급하여 경공업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네째로, 축산업의 발전은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 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로농 동맹을 더욱 발전시킨다.

문—축산업 발전이 현 시기 극히 절절한 과업으로 제기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답—우리 당은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종일관 정확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리하여 정전 후 불과 4~5년 내에 우리 나라 축산업은 전쟁전 수준의 2~3배로 장성 강화되였다.

우리가 달성한 성과가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당이 축산업 발전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전체 인민들의 헌신적 로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승리적으로 완수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육류, 우유, 계란 등 축산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인민들에게 이밥과 기와집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고기'국까지 보장하여 그들의 생활 수준을 가일층 향상시킬 목적 밑에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절실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우리에게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답—우리는 축산업 발전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알곡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실이다. 이리하여 식량의 여유가 조성됨으로써 일정한 량의 알곡을 사료로 충당시킬 수 있게 되였다. 더우기 논밭에서 2모작을 광범히 실시하여 농산물을 사료로서 공급할 수 있게 되였고 산간 지대의 일부 척박지를 전문적인 사료전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되였다. 둘째로, 농업 협동화가 완성되여 조합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구축됨으로써 대규모적인 공동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계획적인 가축 사양 관리 사업과 작업의 기계화를 할 수 있게 되였다. 세째로, 중공업이 급속히 발전됨으로써 축산 발전에 필요한 각종 선진적 기계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였다. 네째로, 우리 나라는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백두산 부근과 일부 고원 지대를 제외한 전 지역에 2모작을 광범히 실시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엔 자연 사료와 급수 원천이 풍부하다.

## 축산업 발전의 기본 고리는 2모작에 의한 공고한 사료 기지를 조성하는데 있다.

문—우리 당은 축산업 발전의 기본 문제로 2모작에 의한 공고한 사료 기지 조성을 제시하였다. 그의 필요성과 유리성은 어데 있는가?

답—공동 축산업이 대규모적으로 발전하여



가축 두수가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가축들의 사료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 형편은 경지 면적이 제한되여 있으며 많은 방목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타산하고 6월 전원 회의에서는 《사료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도는 2모작을 광범히 실시하여 알곡을 비롯한 주작물의 수확고를 계속 높이면서 후작, 전작 및 간혼작으로 사료 작물을 대대적으로 재배하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 2모작을 광범히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데 있는가?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농업 협동 조합들이 강화됨으로써 2모작을 할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구축되였고 관개 체계가 확립되여 1년 내내 가물을 모르는 농촌으로 전변되였다. 동시에 농업의 기계화가 더욱 발전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적 집약 농법이 광범히 도입되였다. 한편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강력한 중공업의 지원과 국영 농목장들의 적극적인 방조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2모작을 광범히 실시하게 되면 사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곡 생산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문— 6월 전원 회의에서 제기된 2모작에 의한 사료 작물 재배 방향은 무엇인가?

답—평야 지대에서는 급경사지를 제외한 모든 전지에 관개 시설을 완비하고 여기에 밀을 심어 정당 평균 3톤 이상의 수확을 내게 하며, 후작으로는 사료용 옥수수를 심고 논과 목화, 담배, 고구마 밭의 전작으로는 보리를 비롯한 사료 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산간 지대에서는 주작물의 재배를 집약화하여 그의 수확고를 계속 높이면서 일정한 경지를 사료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특히 2모작을 할 수 있는 감자와 밀밭 면적을 확장하고 후작 및 간작으로 사료 작물을 광범히 재배하며 산과 폐경지 등에 목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에 근기하여 2모작에 의한 사료 총면적을 1960년에 35~40만 정보로, 3~4년내에는 50~60만 정보로 확장하며 전작에서는 1,5~2 톤, 후작과 전문 사료전에서는 5~6 톤 이상의 사료를 생산할 것을 제시하였다.

문—2모작을 광범히 실시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답—그것은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하는 문제이다. 2모작을 광범하게 실시하려면 많은 로력이 요구된다. 또한 가축 두수의 증가에 따라 축사, 셀로쓰 저장고 등 축산 시설의 건설을 비롯한 기타 축산 작업들도 급격히 증대된다. 그러므로 이처럼 긴장된 농촌의 로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촌 경리의 전반적인 작업을 급속히 기계화하여야 한다.

때문에 당은 《2모작에 있어서는 최근 년간에 파종, 수확, 운반, 탈곡 등 중요 작업을 전반적으로 기계화하며 축산업에 있어서는 우선 사료의 수확, 절단, 분쇄, 가공 등 작업을 기계화》해야 한다고 교시하고 있다.

##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 앞에 제기되는 과업

문—축산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청년들의 과업은 무엇인가?

답—첫째로, 축산 발전에서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되는 것은 축산업을 차요시하는 그릇된 사상 경향을 철저히 없애버리는 것이다. 우리 인민들은 오랜 봉건적 지배와 일제의 가혹한 통치하에서 극도의 생활난으로 인하여 가축을 마음대로 기를 수 없었다. 그때 가축을 기른다는 것은 일부 부유한 농민들의 협소한 부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축산업은 농촌 경리의 기본 부문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오늘 우리 나라의 축산업의 물질적 토대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력사적 근원으로 되며 우리 인민들 속에 축산을 차요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조성시켰다.

이런 현상은 우리 청년들 속에서도 발로되고 있는바 그것은 축산업을 소홀히 여기며 또한 축산 로동을 천시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동원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다. 때문에 전체 청년들은 이러한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당의 축산업 정책을 관철시키는 투쟁의 앞장에 서도록 할 것이다.

둘째로, 청년들은 축산 부문에 광범히 진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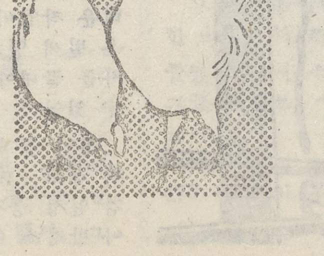
우리 나라 축산업은 력사적으로 락후하며 축산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뿌리 박고 있는 것만큼 축산업을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자면 새 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 이 부문에 적극 나가야만 한다. 더우기 축산업을 대규모적으로 발전시키자면 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지식 있고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청년들이 이 부문에 적극 진출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 청년들은 축산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청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축산 부문에 진출한 청년들은 높은 책임성으로 가축을 정성껏, 세심하게 사양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자면 청년들은 가축을 되는 대로 다루는 현상과 투쟁하며 공동 가축을 성심껏 길러야 한다. 또한 축사를 비롯한 주위 환경을 깨끗이 거두며 힘든 작업을 기계화하여 일을 헐하게 하며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가축을 보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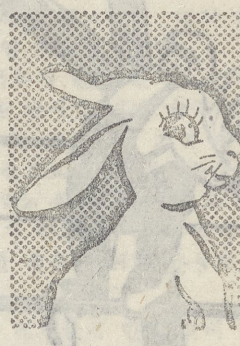
세째로, 청년들은 축산업에 선진 기술을 광범히 도입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농촌 청년들은 축산 기술 크루쇼크에 적극 참가하여 축산 기술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우선 가축 사료 조리 및 급여, 가축의 질병 관찰 등 초보적인 지식부터 소유하여 최단 시일 내에 축산 기능공으로 될 것이며 점차 높은 기술을 배워 기술 자격 검정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훌륭한 축산 기수, 기사, 수의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가축 사양 관리와 종축 사업을 개선하며 산자성을 높이기 위하여 돼지의 1년 3산, 면양의 1년 2산, 토끼의 1년 10산 경험을 광범히 도입할 것이다. 이와함께 수의 방역 사업에 특별히 주목하며 방역 규률을 준수하며 전염병을 근절시키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한다.



네째로, 청년들은 2모작을 실시할 데 대한 당 정책 실행의 선두에 서야 한다.



사료 작물에 더 많은 비료를 주며 관개 체계를 완비하며 비배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단위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일 것이다. 이와 함께 당면한 금년도 밀 가을과 후작 옥수수 파종 사업과 셀로쓰 저장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것이다.

다섯째로, 청년들은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로동 청년들은 높은 애국적 열성과 창발적 지혜를 동원하여 최단 기간내에 담당한 도내 농촌 기계화에 필요한 기계를 생산 보장하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공작 기계 새끼 치기 운동을 강화하여 각도에 설치되는 농기계 종합 공장들과 각 시, 군에 신설 확장되는 농기계 제작 및 수리 공장 건설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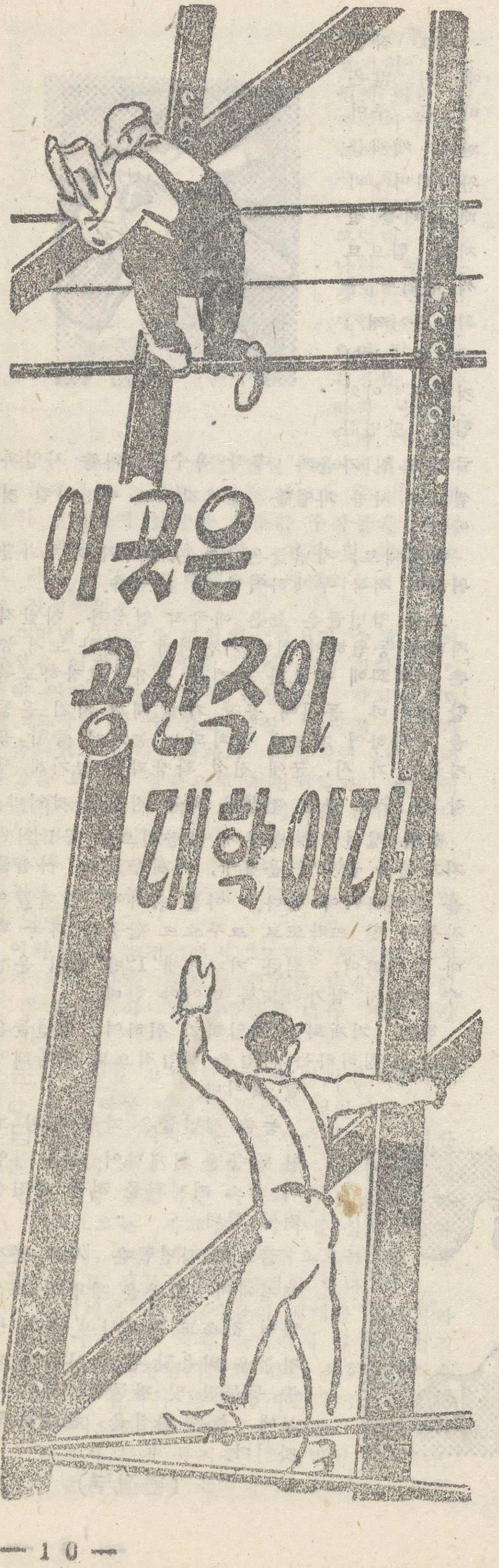
농촌 청년들은 농촌에 다량적으로 공급되는 기계들을 움직일 운전수, 기계공들로 자신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청년들은 자동차 및 뜨락또르 크루쇼크 활동을 더욱 확대 강화하며, 최단 기간내에 12만 명의 운전수 대렬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기계화를 도입하기 위하여 청년들은 포전을 정리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농촌 청년들은 각종 창의 고안 운동을 전개하여 축산 작업의 중소 기계화를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끝으로 청년들은 사료 문제 해결에서 휘산을 광범히 조성하며 건초도 확보하고 식료 폐잔물을 리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동물질 및 광물질 사료 확보에 높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편집부)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장에서—

김 상 日

## 당의 의지로 살며 일하는 사람들

24만 6천 키로와트 암페아의 출력을 가진 강계 청년 발전소가 우리 나라의 용감한 청년들—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청년들의 힘으로 건설되고 있다.

이 공사의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가 하는 것은 다음의 수'자가 말해 준다. 이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서는 무려 33만 8천 여 립방의 언제 굴착, 149만 립방의 언제 콩크리트 타입, 14만 6천 립방의 수로 굴착, 5만 4천 립방의 수로 콩크리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정신에 고무된 젊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이렇게 방대한 공사의 기한을 또다시 단축하여 1961년까지 기어이 끝낼 결의를 다지였다. 지금 이들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공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모르는 기술은 배우고 없는 것은 만들고 필요한 것은 찾아 냄으로써 당의 두터운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한 애국적 헌신성을 다하고 있다.

건설 공사 초기에는 실로 많은 애로와 난관들이 중첩되였다. 건설자들의 첫 그루떼가 당도한 시기에 더욱 그러했다. 해발 1,000 메터에 가까운 높은 지대, 엄동 설한 속에서 작업을 진행한 것도 그러려니와 작업을 마친 다음 발을 펴고 들어 누울 집도 변변치 못했다.

그러나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한 동력 기지 건설에로 청년들을 부른 당의 호소와 이 나라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고 천신 만고를 극복하면서 투쟁한 혁명 선배들의 념원과 위업을 자기들의 두 손으로 실현한다는 궁지와 자각은 난관과의 투쟁에서 집단적 영웅주의를 발휘케 하여 기적을 낳게 하였다.

발전소 건설에서 가물매기 작업은 제일 어려운 작업이다. 때는 늦은 가을이여서 장진강은 벌써 얼기 시작하였다. 결빙기전에 이 공사를 끝내야 언제 기초 굴착 공사를 추진시킬 수 있었다.

청년 돌격대원들은 공사장에 '우등'불을 피워 놓고 모여 앉았다. '우등'불 모임에서는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발전소 언제가 건설되는 이 북방 산악 지대에서 15 개 성상에 걸쳐 영웅적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한 가지가지의 감격스러운 이야기들이 벌어졌고 그들처럼 곤난을 극복하면서 난공사를 수행할 결의를 다지였다.

청년들은 도루박 수문을 막는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 속에 뛰여 들었고 조판섭, 송 계환 등 잠수공들은 8주야나 수중 작업을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4개월을 예견한 작업을 단 23일간에 완수하였다.

또 금년 초에 있은 철탑 해체 작업에서 발휘한 집단적 영웅주의는 이곳 건설자들의 자랑으로 되고 있다. 이곳 추위는 명지대에 비길 수 없다. 기온은 령하 40도를 내려 가는데다가 세찬 하늬바람까지 쉴새 없이 불어친다.

그런데 해체해야 할 철탑은 높은 산꼭대기에 있었고 철탑의 높이는 75 메터나 된다. 게다가 바람이 부는 날에는 철탑의 류동이 한 메터에 이르니 그야말로 난공사이다.

기온이 령하 36도를 넘었으니 작업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다다하고 현장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눈에 띄이게 좌우로 류동하는 철탑 앞에서는 이제까지의 생각이 부질없은 것 같이도 생각키웠다. 이 때 김 원룡 동무는 《당의 의지로 생활하는 우리가 이만한 난관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소!》라고 하면서 선참으로 철탑 꼭대기에 기여 올랐다. 이렇게 해서 작업에 달라 붙어 처음에는 20분 교대를 했는데 그것도 작업의 진척에 지장이 있다 하여 나중에는 3 시간에 한 번씩 교대하여 고공에서 해체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기일 보다 훨씬 단계 수행할 수 있었다.

청년 건설자들의 이와 같은 들끓는 애국적 로력과 창조적 적극성에 의하여 텅 빈 자연 그대로였던 련화터 마을에는 오늘 도시를 방불케 하는 1,100 여 세대의 주택과 총 42,800 여 평방메터의 건물들이 들어 섰고 192 키로메터에 달하는 철도가 놓였다. 또한 언제 굴착 공사장에서는 6만 립방, 수로 공사장에서는 2만 4천 립방의 암석이 굴착되였다. 하루에 수천 립방의 콩크리트 타입을 할 수 있는 혼합 공사장, 선별 공장을 비롯한 방대한 각종 가설비 공사를 끝마치였다.

## 없는 것은 만들고 필요한 것은 찾아 낸다

발전소 건설의 기한 단축의 결정적 고리는 건설 작업을 기계화하는 것이다. 기계화를 실시하자면 무엇보다도 기술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청년 발전소에 온 청년들의 거의 전부는 발전소라는 것은 그림책에서 눈익힌 정도이고 선반기나 착암기라면 학교에서 견학 갔을 때 한두 번 봤을 뿐인 사람들이였다.

이런 것을 타산하여 민청 단체는 청년들 속에서 기술 기능을 단시일 내에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여 자기 손으로 기계 부속품들을 깎아 쓰자는 《나의 대학》 운동이 벌어졌고 각 직장별로 《청년 혁신자 학교》를 조직 운영하여 단시일 내에 기술을 배우기 위한 운동도 광범히 벌어졌다.

이리하여 많은 청년들이 한두 달의 짧은 기간에 능히 자기 맡은 일을 기술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였는데 수로 사업소 우 득환 동무는 불과 1년 사이에 6급 착암수로 되였다.

처음 우 득환 동무는 자기 희망 대로 굴착 부문에 배치되였는데 그에게는 이 일을 감당해 낼 기능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엄 기학 동무에게 련사를 낮과 밤을 이어 착암 기술을 배워 4일만에는 자립적으로 착암할 수 있게 되였다. 그래도 아직 다른 오랜 기능자만큼한 성과는 올리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힘으로라도 해 내자는 결심으로 어떤 때는 작업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들이대여 다른 기능자들을 따라 잡군 하였다. 이러는 과정에서 그의 기술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는데 한 교대 2회 발파 운동을 발기하여 경도 8~11 도나 되는 암석 굴착에서 매일 평균 9 립방메터를 굴착하는 최고 기록을 내였다.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전반적인 청년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 최근 1년 2 개월 동안에 600 여 명의 무기능공이 4~5 급공으로 되였으며 200 여 명의 청년들이 기사, 기수 자격을 받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기술 수준의 제고에 따라 청년들 속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다. 이 혁신은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필요한 것은 찾아 내자…》는 구호와 함께 벌려졌다.

그들은 혼합 공장, 선별 공장 건설에 필요한 4,000 여 조에 달하는 카라야를 자체로 만들었고 이에 소요되는 베아링도 만들었다. 또 그들은 쳐프 구레잉도 두 대나 설치하여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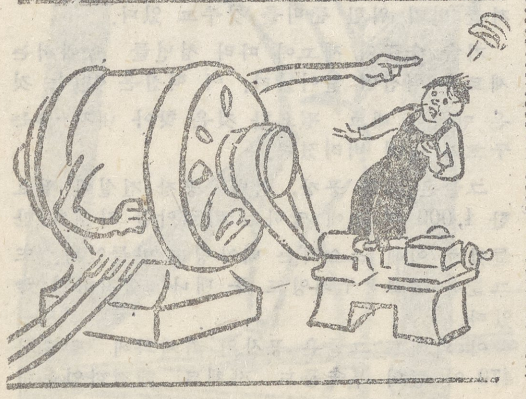
이 외에도 그들은 공사의 기계화에 필요한 470 여 종의 부속품도 자체로 해결하였는데 이 중에는 50 마력 전기삽, 2 대

와 전기차를 비롯하여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각종 기계 부속품들이 들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볼 베아링 만해도 다섯 번이나 실패하였다. 어떤 사람은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공연히 애만 쓴다고 시비질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실천 브리가다원들은 굴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섯 번만에 성공했는데 5대의 련마기를 만들어 이미 3천 여 개의 베아링을 만들었다.

또한 찌프 구레잉은 보통 주택 건설장에 있는 기중기보다 몇 배 더 큰 것으로서 중량이 150 톤이요 높이가 약 40 메터에 이르는 기계다. 여기에 소요되는 부속품도 굉장히 드는데 볼트와 나트만 하여도 1만 7천 여 개나 든다. 그러니 그 많은 자재를 어찌 전부 다 국가에만 의존하랴! 이들 속에는 《꿀벌 운동》이 벌어졌다. 꿀벌처럼 부지런히 파고철을 모아 기계 부속들을 자체로 만들자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누구나 철부치를 얻어 오군 했다. 그리하여 2개월 동안에 150 여 톤의 파고철이 수집되였고 이것을 소용광로에 녹여서는 기계를 만들었고 부속을 깎았다.

이런 경험과 성과는 명년 5. 1 절까지 41대의 단능 선반기와 쁘레나, 후라이스 등 각종 기계 80 여 대를 새끼칠 토대로 되였다. 이것은 또한 이곳 청년들이 애국적 열성과 영웅적 로력 투쟁과 결합되여 제 1 계단 가설 공사를 1959년 7월 말까지, 수로 굴착은 1960년 10월 말까지, 수로 콩크리트 타입은 1960년 말까지, 또한 언제 기초 굴착 공사는 1961년 3월까지, 제 1호 발전소는 1961년 6월 말까지, 제 2, 제 3호는 1961년 말까지 완공하여 조업을 개시하게 할 이곳 청년 건설자들이 당 앞에 맹세한 새로운 결의 실천의 담보로 될 것이다.



동무! 내 힘이 요것 밖에 안된단 말이요?!

## 청년 발명가

### 《관 굴곡기》를 발명

이 기계는 남포 조선소 선체 직장 초급 민청 단체 민청원인 박 두완 동무가 발명했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라!》는 당의 교시를 받들고 박 두완 동무는 관을 굴곡함에 있어서 일일이 콕쓰 불에 달구어 손으로 굴곡하던 수공업적 로동을 기계화할 수 있다는 대담한 생각을 갖게 되였다. 보수주의자들은 쓸 데 없는 생각이라고들 비난했지만 그는 《관 굴곡기》의 설계를 작성하여 공장 당과 민청의 지도를 받으면서 창안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기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전기 용접, 산소 용접, 선반 기술을 단시일내에 습득한 그는 시간외 로동을 통하여 있는 힘과 지혜를 《관 굴곡기》 창안 사업에 기울여 6개월 만에 드디어 성공하였다.

이 기계는 설비가 간편하고 작업에 편리한 것이 특징적이다. 《관 굴곡기》는 전동기 회전 로라를 련결시켜 그 상대측에 관을 지지하는 고정 로라를 붙였는데 임의의 관을 두 로라 사이로 넣고 《만능 굴곡심》을 관에다 넣은 다음 회전시키면 요구하는 굴곡된 관을 얻을 수 있다. 《관 굴곡기》는 종전에 비하여 800%의 생산 능률을 낼 수 있으며 년간 280 메터의 관과 35 톤의 콕쓰와 300 공수의 로력을 절약할 수 있다.

이 《관 굴곡기》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 생산했는데 앞으로 많은 건설장들에서 관을 굴곡하는데 광범히 사용할 수 있다.

**정정**

청년생활 제 6호 2페지 우단 21행의 950 어만 석으로를 950 어만 석이로 정정함.



# 민청 사업에 끼친 종파의 해독

리 홍 종

우리 나라 로동 운동내에 발생한 종파는 력사적으로 우리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종파 분자들은 해방전 1920 년대에 우리 나라 로동 운동을 분렬시키고 조선 공산당을 파괴하였으며 해방 후에도 우리 당과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고 남반부에서 우리 당 조직을 파괴하였다.

종파 분자들은 우리 나라 청년 운동에도 엄중한 해독을 끼쳤다. 종파 분자들은 자기들의 추악한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년 운동을 리용하려 하였는바 그들은 청년 운동을 분렬시키고 당과 청년 대중을 리탈시키는 것을 상투적 수법으로 하였다.

다음에 종파 분자들이 해방후 민청 사업에 끼친 해독을 력사적으로 고찰하고저 한다.

× ×

종파 분자들은 해방 직후에 민청을 창건할데 대한 우리 당의 로선을 반대하며 그 실현을 방해하였다.

민청의 10 여년간의 력사가 증명하여 주는 바와 같이 민청 창건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가장 정당한 것이였다. 이 정당성은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치 정세와 혁명 임무, 그리고 해방 직후의 우리 나라 청년 운동의 정형으로서 설명된다.

8. 15 해방후 우리 혁명의 성격은 여전히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이였으며 당면한 혁명의 기본 임무는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공고한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일체 애국적 민주 력량을 결속함으로써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였다. 그런데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감행으로 인하여 우리 혁명은 장기성과 간고성 및 복잡성을 띠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 력량 관계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하고 북반부에 강력한 민주 기지를 창설하며 로동 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일체 반제 반봉건적 민주 력량을 단결시키는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할 로선을 천명하였다. 이와 같은 혁명 임무는 필연적으로 우리 나라 청년 운동 앞에 근로 청년들을 핵심으로 각계 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단결시켜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각계 각층 청년들을 망라하는 대중적 청년 단체를 창건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해방 직후 우리 나라 각지에는 공청을 비롯하여 각종 명칭을 띤 청년 단체들이 조직되여 있었다. 이 청년 단체들은 성격이 각이하였으며 분산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청년 단체들이 이와 같이 분산되고서는 각계 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의 애국적 력량을 단결시킬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 옳게 조직 동원할 수 없었다. 한편 이 시기에 우익 반동 정당, 종교 단체와 조만식 등 민족 반역자들은 기만적 구호를 들고 자기의 반동적 본질을 은폐하면서 자기 주위에 청년들을 끌어 당기기 위하여 반동 청년 단체를 조직하려고 책동하였다. 이러한 형편은 우리 당에 의하여 령도되는 유일한 청년 단체의 창건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그런데 해방 직후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정치 의식이 높은 청년들만을 망라하는 공청으로서는 각계 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단결시킬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필연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중적—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진 청년 단체를 창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유일한 대중적—민주주의적 청년 단체로서 민청을 조직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치 정세와 혁명 임무로 볼 때나 해방 직후의 청년 운동의 형편에서 볼 때 필연적이며 정당한 로선이였다. 우리 나라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이 로선을 지지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동원되였다.

그러나 오 기섭, 정 달헌, 주 녕하, 리 주하를 비롯한 종파 분자들은 민청 창건에 대한 당의 방침을 반대하였으며 그 실현을 의식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종파 분자들은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하는 것을 《당의 우경화》니 《청년 운동의 퇴보》니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에게 투항하는 것》이니 하면서 당을 비난하고 민청 창건을 반대하였다. 오 기섭은 황해도에 가서 민청을 조직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정 달헌은 함남도에 많은 공청

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민청 창건을 반대하면서 그들이 들고 나온 《구호》의 본질은 우리 당이 마치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에서 물러서 있고 자기들만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충실한 듯이 가장하면서 청년 대중을 기만하여 자기들의 종파적 목적에 리용하려는 반당적 시도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였다. 사실에 있어서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을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며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당 종파 분자들의 추악한 목적은 실현될 수 없었다. 광범한 청년들은 민청 창건을 열렬히 지지하여 나섰으며 종파 분자들의 반당적 책동은 우리 당에 의하여 결정적 타격을 받고 분쇄되였다. 종파 분자들의 영향이 심하였던 함남, 강원, 황해도 일부 지방에서 민청 조직이 지연되였으나 결국은 당의 령도하에 전국적으로 민청 단체는 조직되였으며 그 대렬은 확대 발전하였다.

당에 의하여 강력한 타격을 받은 종파 분자들은 이제는 당의 로선을 공공연하게 정면으로부터 반대하여 출현하지 못하게 되였으며 자기 정체를 은폐하고 량면주의적 립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민청 창건을 반대하여 나섰던 종파 분자들은 민청이 조직된 후에는 겉으로는 찬성하는 체 하면서 이번에는 다른 구호 즉 《공청의 간판을 민청의 간판으로 바꾸어 놓고 사업은 공청식으로 하라》고 추동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벌써 민청을 창건하는 전후 시기에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하는 것은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성격과 함께 사업 방법도 변동된다는 것을 한두 번만 강조한 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종파 분자들은 《공청식》으로 사업할 것을 추동하였는바 이 주장의 본질은 각계 각층 청년들을 민청에 받아 들여 단결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종파 분자들은 민청 기관내에 들어온 자기의 졸도를 통하여 당의 로선을 위반하게 하였다. 이러한 단체들에서는 각계 각층 청년들을 민청에 광범히 받아 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청에 받아 들인 청년들도 이러 저러한 부당한 구실밑에 수많이 제명함으로써 청년들의 단결을 엄중하게 약화시켰다.

종파 분자들이 끼친 이와 같은 해독적 영향은 1947년에 진행된 전반적 맹원 재등록 사업에서 엄중하게 표현되였다. 1946년에 진행된 맹원 심사와 맹원증 교부 사업, 1947년에 진행한 맹원 재등록 사업은 민청내에 잠입한 친일 반동 분자들을 제거하며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필요하고 정당한 조치였으며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함남도를 비롯하여 종파 분자들의 영향을 받은 일부 민청 단체들에서는 민청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한다는 구실하에 정치 의식이 어리나 능히 교양 개조하여 단결할 수 있는 청년들을 적지않게 민청 대렬에서 제거하였다. 이것은 청년들의 단결을 약화시킨 심중한 해독이였다.

민청 단체들로 하여금 이러한 오유를 범하게 한 것은 당시 민청 중앙 위원회 위원장이였던 종파 분자 김 욱진을 비롯한 일부 불건실한 분자들의 책동과 관련되여 있다. 이자들은 오 기섭, 주 녕하 등 종파 분자들의 지시를 집행하면서 민청 기관내에서 간부들간에 리간을 조성하며 민청의 조직 원칙이 외곡 집행되도록 하부 민청 단체를 추동하였다. 김 욱진은 민청 기관내에 《함남도 제 1주의》를 부식하면서 불건실한 함남도 사람으로만 중앙 민청 기관을 꾸리여 가족주의를 조장하며 하는 한편 기타 도 출신의 건실한 일'군을 배척하였다. 뿐만 아니라 함남도 민청 단체 사업은 무조건 높이 평가하는 반면에 평남, 황해도, 기타 도 민청 단체 사업에 대하여서는 계속 부당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중앙 민청 기관 일'군들간의 단결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민청 단체들간의 단결도 약화시켰다.

당은 반당 종파 분자들의 이러한 책동을 제때에 분쇄하였으며 민청 단체들로 하여금 종파 분자들이 민청에 끼친 악영향과 민청내의 불건전한 요소들을 제때에 극복하고 자기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도록 지도하여 주었다.

해방 전후를 통하여 우리 혁명과 당 사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종파 도당은 남조선에서 청년 운동을 완전히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반부에서의 민청 사업에도 심중한 해독을 끼쳤다.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은 해방 직후 남조선에서도 민청을 조직할 데 대한 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고의적으로 태공하면서 공청을 그대로 남겨 두고 따로 《조선 청년 총동맹》을 조직함으로써 청년들의 단결을 방해하고 청년 운동을 분렬시켰다. 그러다가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의 강력한 대책에 의하여 1946년 4월에 가서야 민청이 조직되였다.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은 민청이 조직된 후에는 미제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면서 민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청년 운동을 분렬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그들은 남조선 로동당의 활동과 조직 체계 및 간부 명단과 함께



민청의 활동과 간부들을 적에게 알려 줌으로써 미 군정으로 하여금 남조선 민청을 탄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주었다. 또한 이자들은 남조선 혁명 력량을 의식적으로 파괴하기 위하여 조성된 정세와 대중의 준비 정도를 무시하고 당원들과 함께 청년 학생들을 과격 모험주의로 내몰아 무모한 폭동을 임의로 조직하거나 또는 빨찌산 투쟁에서 무모한 진출을 강요함으로써 당 조직과 민청 조직을 적 앞에 로출시키고 수많은 당원들과 애국 청년들을 희생시켰다. 그리하여 민청의 력량은 약화되고 청년 군중과 리탈하였으며 간부들과 열성자들을 상실함으로써 민청은 무기력하게 되였다. 미군 무력과의 직접적 충돌의 조작은 미제에게 민청에 대한 탄압의 구실을 주었는바 1948년에 미제는 공개적으로 민청 해산을 명령하였다.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은 자기들의 반당 반혁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년 학생들 속에서 숭미 사상과 박 헌영에 대한 개인 숭배 사상을 침습시키기에 광분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해방적 역할을 과소 평가하면서 미제가 마치 조선 인민의 《해방자》인 것처럼 선전하였으며 미제가 장기간 양성한 충복 리 승만을 그들이 뒤'고방에서 조작한 《인민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추대한다는 선전을 하였으며 심지어 박 헌영을 《탁월한 리론가》라고 까지 선전하였다. 한편 그들은 북반부에서의 민주 개혁과 민주 건설의 성과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암둔하게 만들어 반혁명의 길로 이끌려고 하였다. 박 헌영 간첩 도당의 이와 같은 범죄적 행위에 의하여 남조선 민청은 1949년초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은 공화국 북반부에 들어 와서도 민청 사업에 해독을 끼쳤다.

그들은 민청을 조직적으로 분렬시키며 사상적으로 파괴하여 청년들을 반혁명의 길로 끌어 넣으려고 음모하였다. 이 음모의 실현을 위하여 그들은 민청 내에 자기의 종파의 지반을 닦으려고 흉책하였으며 민청 기관 내 일'군들의 단결을 약화시키며 청년들 속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비방하고 불평 불만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한편 이 간첩 종파 도당은 자기의 졸개들인 반동 부르죠아 작가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등을 내세워 민청 출판물을 통하여 부르죠아 사상의 독소를 퍼쳐 청년들의 혁명적 의식을 흐리게 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반동 작품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패배주의 사상을 주입하여 애수와 타락의 감정을 고취하여 자기들의 반혁명적 목적에 리용하려 하였던 것이다.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은 반혁명 활동의 마지막 시기에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무장 폭동을 음모하면서 이 반혁명적 활동에 청년들을 리용하려고 갖은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이 악당들은 신해방 지구 청년들을 외국에 류학 보낸다는 기만으로 강제로 징모하여 무장 훈련을 시켰으며 박 헌영에 대한 개인 숭배 사상을 배양하고 우리 당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평 불만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의 이러한 악랄한 간첩 및 종파 행동도 우리 당의 위력에 의하여 적발되였으며 민청의 창건기로부터 오래 동안 청년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놈들의 책동은 철저히 폭로 분쇄되였다.

혁명의 배반자이며 종파 분자인 허 가이의 취소파적인 반당적 행동이 민청 사업에 적지 않은 해독을 끼쳤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허 가이는 오래 전부터 우리 당내에 관료주의, 형식주의 사업 작풍과 가족주의 분위기를 조장하여 오던 개인 영웅주의자였다. 그는 우리 당 대렬을 와해시키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려는 목적하에 전쟁 시기 당 단체들의 복구 정리 사업 행정에서 관문주의, 책벌주의적인 반당적 행위를 감행하였다. 허 가이가 감행한 이 반당적 취소파적 행동의 결과 당내 민주주의가 마비되고 비판과 자기 비판이 억제되였고 당원들의 창발성이 억압되였으며 허 가이가 조장시킨 당 사업에서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는 당과 대중과의 굳은 련계에 큰 장애를 가져 왔던 것이다.

허 가이의 이와 같은 관료주의는 민청 사업에도 해독적 영향을 주었는바 오늘까지 민청 사업에 지속하는 관료주의의 근원의 하나는 허 가이가 조장시킨 관료주의의 영향이다. 민청 중앙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김 욱진이와 그 후에는 현 정민이 허 가이의 영향을 받아 민청 내에 관료주의를 조장시켰다. 그들이 민청 위원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시기는 소위 《위신》을 세우는 시기였으며 사업에서 독단주의가 허용되고 관료주의 《룰》이 만들어진 것으로 특징적이다. 그들이 조장시킨 관료주의는 지방 민청 단체로 내려 갔다.

허 가이의 영향을 받은 현 정민은 민청 조직을 복구하는 시기에 맹원증을 적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소각 매몰한 민청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책벌을 적용하게 하였으며 수많은 민청 일'군들에 대하여 책벌과 철직을 주는 방법으로 사업하였다. 그런 결과 민청에서 청년들을 리탈시켰으며 민청 일'군들의 장성 발전을 저애하였으며 그들의 사업 의욕을 마비시켰다.

종파 분자들이 민청 사업에 끼친 해독에 대하여 지적할 때 우리는 형식주의를 조장시켰으며 우리 당의 문예 정책을 외곡한 종파 분자 박 창옥이 끼친 해독을 간과할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박 창옥은 우리 당 선전 사업 분야에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조장시킨 자이다. 당시 현 정민, 김 욱진 등은 박 창옥의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받아 들여 민청 선전 사업에 허풍과 만세가 가득 차게 하였던 것이다.

박 창옥은 또한 박 헌영 도당과 허 가이 등이 문예 분야에 끼친 해독을 청산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비호하고 조장시켰으며 부르조아 반동 작가들과 사상적으로 결탁하여 반당적 책동을 감행하였다. 그런 결과 청년들에게 사상적 해독을 끼친 부르조아 문예 여독의 청산이 지연되였던 것이다.

최 창익, 박 창옥을 두목으로 한 반혁명, 반당 종파 집단도 민청 사업에 해독적 영향을 끼쳤다.

이미 폭로된 바와 같이 최 창익, 박 창옥을 두목으로 한 반당 종파 분자들은 자기의 오래 전부터의 종파적 습성을 버리지 않고 장기간 종파 음모를 계속하다가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이 로골화되며 국내적으로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북진》 소동이 격화되는 그러한 시기에, 그리고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머리를 쳐들고 우리 당과 혁명에 도전하여 나섰다.

최 창익 도당은 수정주의 사상을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 속에 류포하려고 흉책하면서 학교 교단을 리용하려고 까지 하였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중심 문제인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의 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인하였으며 당내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거부하고 부르조아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제창하였으며 심지어 《종파의 유익설》 까지 제창하여 나섰다. 종파 도당들은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인민들과 청년들의 건전한 사상을 종파 독소로 물들이며 우리 나라에 무정부적 혼란 상태를 조성시켜 우리 당과 정부를 전복하려는 반혁명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이 악당들은 자기들의 반당, 반국가적 활동에 순진한 청년 학생들을 끌어 들여 그들을 반혁명의 구렁에로 밀어 넣으려고 하였으며 심지어 일부 민청 단체를 반당 반혁명적 활동에 리용하려고 까지 흉책하였다. 그들은 민청을 《문화 단체》 혹은 《구락부》로 전락시키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면서 일부 민청 단체들에게 조직 정치 사업을 하지 말라고 추동하였다. 이 주장은 본질에 있어서 청년들의 정치 단체인 민청의 전투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시도이며 민청 단체를 종파 분자들의 롱락물로 전락시키려는 반혁명적 시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 창익, 박 창옥을 두목으로 하는 반당 반혁명 종파 집단의 모든 음모 책동은 우리 당에 의하여 적발 분쇄되였다.

× ×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종파 분자들은 청년들의 단결을 약화시키며 민청내의 당적 사상 체계를 혼란시키려 하였으며 민청 일군들의 단결에 해독을 끼쳤다. 그러나 종파 분자들의 어떤 기만 술책으로도 당에 대한 민청과 청년들의 충성심을 약화시킬 수 없었으며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에서 청년들을 리탈시킬 수는 없었다. 민청과 그의 맹원들은 언제나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에 충직하였으며 당의 후비대이며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이 직접 민청을 조직 지도하였으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오늘 민청 내에는 당적 사상 체계가 확립되여 있으며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히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단결되여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청년들 속에서의 당적 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투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은 이 투쟁을 더 완강히 계속할 것을 요구한다.

민청 단체들은 전체 청년들 속에서 종파의 해독성과 죄악을 계속 철저히 폭로하는 한편 그의 온상으로 되는 가족주의와 지방주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빼기 위한 투쟁을 견결히 조직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계속 깊이 학습하며 혁명 선배들의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체계와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자기의 실생활에 구현하며 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킬 것이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를 정치 사상적으로 보위하는 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전체 청년들은 언제 어데서나 우리 혁명의 심장이며 뇌수인 당 중앙 위원회를 견결히 지지 옹호하며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충실히 실천하는 당의 붉은 전사가 되여야 한다.



정치 강좌

# 조선 로동당 (6)

## 조선 로동당의 군중 로선

###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은 어떤 로선인가?

군중 로선이란 당의 모든 사업을 대중과 결합시키는 로선이다. 우리 당은 대중을 령도하여 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인민 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민 대중과 밀접한 련계를 맺고 인민 대중에 의거하는 로선을 견지한다.

우리 당은 자기의 정치 로선과 정책들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근거하고 인민 대중의 정당한 의견과 요구를 받아 들여 그것을 반영하며 인민 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이 바로 그러하며 최근 시기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에서 제시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당 정책이 역시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명백히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당 정책들은 철두 철미 인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 그것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 조건과 인민의 요구를 깊이 료해한 기초 우에서 수립된 것이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모든 정책의 수립과 당 활동에 있어서 항상 인민 속에 있으며 인민의 의견과 요구에 의거하는 고귀한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은 또한 자기의 정치 로선과 정책들을 실현함에 있어서 우선 당 내의 사상 행동상 일치와 단결을 보장하며 당과 인민 대중과의 밀접한 련계를 맺어 대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키며 동시에 당 정책을 대중 속에 해설 침투시키여 대중이 당 정책을 자기 자신의 정책으로 인정하고 그 실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조직 동원한다. 우리 당이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행정적 사업 방법을 반대하고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는 방법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그 명백한 표현이다.

우리 당의 정책이 항상 정확하며 그것이 언제나 인민 대중의 지지와 옹호를 받으며 그 실천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있는 것은 당이 이와 같이 자기의 확고한 군중 로선에 립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은 혁명적 군중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은 인민 대중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태도 즉 혁명적 군중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군중에 대한 관점은 모든 계급에게 있어서 공통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각 계급들은 그가 처하고 있는 계급적 처지와 세계관이 다름에 따라 그가 추구하는 리해 관계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착취 계급과 그 리익을 대표하는 당의 군중에 대한 관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민 대중을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관점이다. 착취 계급은 근로 대중을 미

편하고 봉대하여 다만 착취 계급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착취 계급은 근로 인민은 력사 발전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그들은 제왕이나 영웅호걸이 력사를 제마음 대로 움직이고 발전시킨다고 주장한다. 착취 계급은 자기의 계급적 리익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근로 대중을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반동적 관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로동 계급과 그 리익을 대표하는 맑스—레닌주의 당의 군중 관점은 착취 계급의 군중 관점과는 대립된다. 맑스—레닌주의 당의 군중 관점은 력사를 창조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기본 력량은 근로 대중이라고 인정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군중 관점이다.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은 이와 같은 군중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혁명적 군중 관점은 우선 인민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 복무하는 관점이다.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관점은 인민 대중에 대하여 책임지는 태도에서도 표현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람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더 잘 사업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에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태도를 가지며 책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혁명적 군중 관점은 인민 대중의 힘을 믿으며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데서 표현된다. 혁명은 인민 자신을 위한 것이며 또 인민 자신이 하는 일이다. 때문에 당의 임무는 인민을 대신하여 혁명을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 대중을 교양하여 그들의 자각성을 계발시킴으로써 그들을 혁명 승리에로 옳게 조직 동원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혁명적 군중 관점을 소유한 사람은 군중에게 명령하고 호령하지 않으며 항상 인민에게 참을성 있게 혁명의 도리와 방도, 당의 정책을 해설하고 설복하여 그들을 각성시키며 혁명 사업에 자각성과 적극성을 발휘하게 하는 방법을 근본으로 한다.

혁명적 군중 관점은 또한 인민 대중에게서 허심하게 배우는 태도에서 표현된다. 혁명적 군중 관점을 소유한 사람은 겸손하며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인민 대중과 의논함으로써 집체적 사업 방법을 엄수하여 주관주의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 지도된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이룩된 것이다. 당시 빨찌산들은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구호하에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과 고락을 함께 하고 그들과 한몸이 되였으며 그들에게서 배우며 가르치는 인민적 사업 작풍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중 로선을 관철하며 일군들에게 혁명적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시키며 일체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공명주의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여 왔다.

###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민청 단체들의 과업

우리 당의 후비대이며 방조자인 민청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각계 각층 청년들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단결 문제는 우리 당의 군중 로선으로부터 출발되는 민청 건설의 기본 문제이다.

각계 각층 청년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문제는 경제적 및 사상적 개조의 두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여 사회주의 경리 형태가 유일하게 지배하고 있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모두다 사회주의 경리 형태에



망라되였으며 각계 각층 청년들간에 존재하였던 계급적 모순은 기본적으로 청산되였다. 이것은 각계 각층 청년들을 경제적으로 개조하는 문제가 해결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단결을 위하여 현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는 문제이다. 즉 청년들 속에서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그들을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여 당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키는 것은 각계 각층 청년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기본 과업으로 된다. 민청 단체들은 각계 각층 청년들 속에서 당 정책을 해석 선전하며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자기의 미래와 행복을 찾으며 자기 발전 전망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과 재능을 사회주의 건설에 다 바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각계 각층 청년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민청내 핵심 진지를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민청 단체들은 사상이 견실하고 군중 관점이 옳바르고 청년 군중에게 신망 있는 민청원들을 핵심으로 선발하여 그들을 주의 깊게 육성하며 그들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락후한 계층 청년들을 교양 개조하는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는 민청 열성자들이 정확한 군중 공작 방법을 체득하여야 한다.

군중 공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의 접촉을 강화하여 그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알아 보고 그를 해결하여 주며 그들을 일상적으로 도와 주며 착오에 대해서는 친절히 설복 교양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을 믿고 손을 잡고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 가야 한다.

다음으로 군중 공작에서는 설복과 교양의 방법을 견지하여 청년들을 각성시키고 사업에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청년들을 어떤 과업 수행에 조직 동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과업의 내용과 의의 및 실현 방도를 명확히 인식시키는 사상 동원을 하여야 한다. 매개 청년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떤 난관에 부닥쳐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철저한 사상적 준비를 갖추게 하고 경제 활동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청년들은 사업에서 자각적 열성과 무궁 무진한 창발력을 발휘하게 된다. 민청 단체들의 모든 활동은 청년들의 자각적 열성을 동원하는데 두어야 한다. 민청 단체들은 경제 캄파니야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록 짧은 기간에 적은 인원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동원된 곳에 림시로 민청 단체를 조직하고 민청원들이 정상적으로 조직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작업 현장에서 총회와 학습회 그리고 흥미 있는 군중 문화 체육 사업과 기술 학습 등을 조직 진행하며 일단 작업이 끝나면 청년들의 경제 활동과 민청 생활 정형을 정확히 총화하여야 한다. 작업이 끝나고 자기 초급 민청 단체에 돌아 오게 되면 해당 초급 민청 단체는 다시 그들의 활동을 집행 위원회 또는 총회에서 평가해 주어야 한다.

사업에서 설복과 교양 대신에 행정식 사업 방법과 명령주의, 관료주의 등은 우리 당의 군중 로선과 인연이 없는 사업 방법이다. 때문에 민청 열성자들은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민청 단체들은 청년 군중 속에 당 정책을 해설 침투시키며 그의 집행에로 청년들을 조직 동원하며 당 정책을 외곡, 비속화하고 그의 관철을 지연시키는 제 현상과 철저히 투쟁하여야 한다. 민청 열성자들은 당 정책 실행에 대한 형식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들을 시정하고 자신으로부터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며 그 실천의 선두에 서야 한다.

# 단결—투쟁—단결

하 만춘
강 영수

회천 공작 기계 공장 차 순희 브리가다에서 있은 사실이다. 브리가다원 조 성진은 자유주의 행동이 심하여 생활을 제멋대로 하며 남의 충고와 비판을 접수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행동과 의견이 제일인 듯이 달라 붙어 언행하는 것이 버릇같이 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조 성진은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산 계획을 미달하고 오작품을 내고 있었다.

민청 분조에서는 그의 결함을 시정하여 주기 위하여 여러번 분조 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는 그에게 《강한 비판》과 책벌을 주어 그를 단단히 혼내우는 것으로 결함을 시정하여 주려고 하였다. 그래서 회의에서는 그의 결함에 대하여 《엄격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이후 그의 결함은 시정될 대신에 음주 방탕까지 겸하여 가면서 더욱 우심하여 갔다.

분조내 민청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동무의 결함을 바로잡아 주겠는가 하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강한 비판만 가지고서는 그를 개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선 조 성진 동무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집단 생활에 접근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개별적인 담화와 충고 등 설복의 방법으로 그를 꾸준히 교양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조 성진 동무를 군중 문화 사업에 인입하여 그의 재능을 발전시키도록 고무하여 주었으며 모든 동무들이 그의 일상 생활에 대하여 친절히 돌봐주었으며 한편 개별적인 충고도 주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은 조 성진 동무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였다. 조 성진 동무는 오늘 자기 계획을 항상 초과 완수할 뿐만 아니라 민청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충실한 민청원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차 순희 브리가다에서는 영예로운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차 순희 브리가다에서 있은 이 사실에서 중요한 한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청년들 속에서 사상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청년들 속에서 사상 투쟁을 진행할 때에 그것은 언제나 단결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투쟁하며 투쟁을 통하여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사상 투쟁은 계급 투쟁의 한 형태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 경제 제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사람들의 사상까지 개조하여야 비로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 교양이 가장 절실한 혁명적 과업으로 제기되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가 진행하는 혁명은 곧 온갖 낡은 것을 분쇄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입니다. 새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 진보와 보수와의 투쟁, 적극과 소극과의 투쟁,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와의 투쟁, 총체적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투쟁 이것이 우리가 진행하는 혁명 투쟁의 내용입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철저한 사상 교양 사업과 사상 투쟁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전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의 사상 도덕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다.

우리 당의 거대하고도 다방면적인 교양 사업의 결과 우리 나라 청년들은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 답게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청년들의 머리 속에는 아직 낡은 사상 잔재, 집단주의에 상반되는 개인주의, 규률을 약화시키는 자유주의, 로동과 사회적 소유에 대한 불성실성, 사랑, 결혼, 가정에 대한 비량심적 태도, 가족주의와 지방주의 잔재 등이 남아 있다. 이러한 낡은 사상 잔재들은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며 청년들의 단결에 지장을 주고 있다.

청년들의 단결과 혁명 발전에 유해로운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사상 투쟁 없이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할 수 없으며 청년들의 단결을 일층 강화할 수 없는 것이다.

얼마전에 있은 민청 중앙 위원회 제 8차 전원 회의가 또다시 강조한 바와 같이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단결을 일층 강화하는 문제도 바로 그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기본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들 속에서의 사상 투쟁의 목적은 그들의 사상을 사회주의적으로 철저히 개조하여 사상적 단결을 강화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사상 투쟁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단결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 사상 투쟁을 통하여 단결을 더욱 공고히하는 것으로 되여야 한다. 단결—투쟁—단결 이것이 청년들 속에서의 사상 투쟁의 유일하게 정당한 원칙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서 출발하여 진행하는 비판과 자기 비판은 응당 성실하고 동지적이며 건전한 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결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오늘 일부 청년들 속에서는 사상 투쟁의 목적과 원칙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한 데로부터 사상 투쟁에서 이 원칙과 어긋나는 현상들을 종종 나타내고 있다. 조 성진 동무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차 순희 브리가다내 청년들의 사상 투쟁의 첫 출발이 그 실례로 된다.

여기에서는 사상 투쟁 첫 시기에 《엄중하다》, 《옳지 못하다》, 《사상이 나쁘다》 등의 과격한 말로써 혼을 내여 조 성진의 결함을 시정해 주려고 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들은 단결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비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비판의 방법이 잘못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조 성진의 결함은 시정되지 않았으며 단결을 달성하지도 못하였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와 같이 청년들 속에서 발로되는 결함은 각이한 형태로서 나타나며 또 같은 결함도 각이한 원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매개 청년들이 자라난 가정 환경과 사회적 환경, 그의 성격상 특성, 자체 사상 단련을 위한 주관적 노력의 정도가 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무의 결함을 시정시켜 주기 위한 비판은 그의 결함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그리고 그의 준비 정도와 특성에 따라 각이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한 혁명 선배는 1930년대에 김 일성 동지가 청년 공작원들에게 주신 말씀을 회상하여 이렇게 쓰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이렇게 교시하였다. <동무들이 어머니를 생각해 보라, 어머니는 같은 피'줄을 타고 난 자식들이라도 맏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막내 아들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을 옳게 키워 낼 수 없다. 왜 그렇겠는가? 그것은 형제간에도 그의 취미와 성격, 년령 같은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년들 속에서 비판을 전개함에 있어서 기본으로 삼아야 할 지침을 주는 교시이다. 만일 당 정책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온 결함이라면 당 정책을 해설해 주고, 사리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온 결함이라면 사리를 잘 해명해 주며, 어떤 생활상 고민에서 오는 결함이라면 그의 고민을 풀어 주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친절한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동지애가 넘쳐 흐르는 비판이 되여야 한다.

조 성진 동무의 경우를 보라! 과격한 말로써 혼을 내는 방법이 보다 엄중한 후과를 가져 오지 않았는가! 그러나 차 순희 브리가다내 민청원들은 여기서 즉시 교훈을 찾고 조 성진 동무를 집단 생활에 더욱 접근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해설과 설복을 위주로 하는 동지적 비판 사업을 그의 준비 정도와 특성에 맞게 진행한 결과 그는 자기 결함을 진실로 뉘우치고 자각적으로 결함을 시정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동지들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 주는 생생한 교훈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상 투쟁에서 원칙성을 상실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낡은 사상 잔재와는 추호도 타협할




설복과 해설 대신에……

수 없으며 따라서 비판도 언제나 원칙적이며 탱철하여야 한다. 그러나 탱철하고 원칙적인 비판이란 소리를 높여 내려 치기만 하는 비판은 아니다. 어떤 비판이 탱철하고 원칙적인 비판인가?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청년 공작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던 것이다. 《비판을 진실로 엄격하게 하자면 우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정확하게 료해해야 하며 왜 그런 결함을 낳게 하였는가, 그 원인이 어데 있는가를 파고 들어 가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대상이 알아듣도록 하나하나 결함을 지적해 주고 그가 결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방조해 주어야 한다. 비판을 할 때에는 사소한 결함이라도 묵과하지 말고 빠짐없이 분석해 주고 시정할 방도까지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것이 진짜 무자비한 비판이요, 엄격한 비판일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간곡히 교시한 바와 같이 비판은 언제나 어머니가 제자식에 대하는 립장에서 사람을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동지애로써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동지들이 주는 비판을 접수함에 있어서도 성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지들이 주는 비판을 대담하고 허심하게 접수할 줄 아는 사람만이 결함을 급속히 시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물론 동지들이 주는 비판에는 때로는 과격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을 수 있으며 자기 생각과 어긋나는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 결함을 시정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해 주는 동지애를 생각할 때 접수 못할 비판이 어디 있겠는가?

허심하게 동지들의 비판을 접수하고 이에 기초하여 결함에 대한 자체의 분석을 때맞게 그를 정확히 판단하고 시정한다면 그의 시정 속도는 더욱 빠를 것이다.

조 성진 동무의 경우를 보면 동지들의 비판이 과격하다 하여 불평과 불만을 품고 그를 접수하지 않은 결과 첫째로는 자기 발전에 지장을 가져 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단의 단결에도 지장을 주었던 것이다.

청년들은 동지들이 주는 비판에 대하여 정확한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결함을 비판함에 있어서 솔직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의 사소한 결함이라도 동지들 앞에 솔직히 내놓는다면 동지들로부터 더 많은 방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결함을 시정하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더 굳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청년들의 단결에 유익한 일이다. 자기 비판이 마치도 자기 《인격》이 손상 당하며 《출세》에 지장을 주는 것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결함은 지속될 것이며 자기의 발전에 더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자기 발전을 위하여서는 자기 결함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비판하며 비판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를 시정하기 위하여 완강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조 성진 동무의 사실에서 유익한 교훈을 받아 단결—투쟁—단결의 원칙에서 사상 투쟁을 옳게 진행하여 모두다 붉은 사상으로 무장하고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로 용감히 전진하자.

## 생활의 갈피

### 《달콤한 꿈》

황남도 수몽군 청암역에서 일하는 신 용찬 동무는 저녁 무렵이 되면 외례히 《매력 있고》, 《이여쁜》 처녀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안해를 원망하였다.

그는 늘 입버릇 처럼 《3년 날 짓하게 살았더니 이젠 싫증이 나서 못살겠어!》라고 되뇌이면서 자기의 안해를 내버렸으면 하고 생각해 왔다.

이렇게 되자 그는 《애교가 없다》느니 《곱지 못하다》느니 하는 따위의 얼토당토않은 생트집을 잡아서 안해를 박대하기 시작했다.

날이 지남에 따라 그의 못된 버릇은 자라갔다. 나중엔 생활비도 안해에게 들어다 주지 않고 몽땅 술을 마셔 버리는 일이 빈번해 지고 지어는 외복까지 내다 팔아서 술값으로 탕진해 버리고도 콧소리를 치기가 일수였다.

하루는 고주망태기가 되어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공연한 생트집을 잡아서 안해에게 손찌검까지 하였다.

이날도 그의 안해는 치미는 울화를 꾹 참고 술취한 남편을 고쳐 놓으려고 애썼다. 허나 어처구니 없는 이 청년은 《흥! 이 꼴을 안보려거던 리혼을 하면 되지 않는가!》고 대어들었다.

신 용찬 동무는 안해를 박대하고 다른 처녀를 탐내고 있으나 이러한 너절한 청년에게 마음을 줄 처녀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 초급 민청 단체들에서

## 규약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분조에서는 민청 중앙 위원회 제 8차 전원 회의 결정을 실천하면서 민청원들 속에서 규약 학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 기간 분조내 일부 민청원들 속에는 맹원증 보관을 소홀히 하며 민청 총회와 민청 학습회 등에 잘 참가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민청 생활 규범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는 현상이라는 것을 전원 회의 문헌 학습을 통하여 명확히 알게 되었다.

우리 분조에서는 민청원들의 규약에 대한 리해 정도를 더 구체적으로 료해하기 위하여 규약 내용을 가지고 담화 사업을 조직했다. 알고 보니 민청원의 의무와 권리를 충분히 리해하고 있는 동무들은 많지 못하였다.

우리는 초급 민청 단체의 방조하에 민청원들 속에서 규약 내용을 가지고 조항 별로 토론회를 조직하였다. 이와 함께 규약의 내용을 첫 조항부터 구체적으로 해설하여 준 다음 분조내의 구체적 실정에 결부시키면서 반복하여 해설 사업을 계속하였다.

한편 분조 회의를 통하여 민청 규약을 가지고 담화를 조직하여 민청원들이 아직도 잘 리해하지 못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꾸준하게 해설을 해주었다.

우리 분조에서는 또한 매개 민청원들에게 사업 분공을 줄때 반드시 제기된 문제의 중요성을 해설하여 주는 동시에 이의 성과적 보장은 곧 민청 규약에 지적된 민청원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인식을 똑똑히 가지게 함으로써 맡은바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높이게 하였다. 역시 위원 분공에 대한 총화 사업도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들은 민청원들을 규약상 원칙과 민청 생활의 제 규범을 정확히 준수하는 길에 들어 서게 하였다.

합흥 목제품 공장 초급 민청 단체
청년 브리가다 분조장

김 복남

## 50 대의 새끼를 쳤다!

신의주 방직 기계 제작소 민청원들은 공작 기계 새끼 치기 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두 달 동안만 하여도 만능 선반과 만능 선반을 비롯한 50 대의 공작 기계를 생산하였다.

이와 같이 생산한 공작 기계들은 즉시 생산에 도입되어 매일 다량의 방적 기계 부속품들을 깎아 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손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많은 난관과 애로들이 제기되였다. 더우기나 공작 기계 제작 직장에 망라된 인원의 85%가 신입 로동자들이 였었기 때문에 기술 문제, 특히는 제품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어간한 애로가 아니였다. 민청원들은 당 단체의 방조 밑에 이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기능공 한 명에 10 명씩의 무기능공을 붙여 한 개 조를 만들고 생산을 전문적으로 공정별, 부속품 별로 전문화 하였다. 한편 민청 분조에서는 수시로 개별적 또는 집체적 담화를 통하여 공작 기계 생산에 대한 새로운 창발적 의견을 광범하여 생산에 받아 들이게 함으로써 기대당 제작 기간 단축과 제품의 질제고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리하여 공작 기계 개당 제작 시간은 계통적으로 단축되었는데 5월에는 17 대의 만능 선반기 밖에 생산 못하였으나 6월에는 30 여대의 공작 기계를 만드는 성과를 냈다. 또한 제품의 질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곳 민청원들은 이미 얻은 경험을 살리면서 앞으로 년말까지 178 대의 공작 기계를 더 만들고 금년에 379 대의 염사기 및 방적기를 만들며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결의 밑에 공작 기계 새끼 치기 운동의 앞장에 서서 나아 가고 있다.

(본사 기자)

## 화초 만발한 아름다운 거리로!

우리는 지난 6월 15일에 60 명의 민청원들로써 《청년 록화 근위대》를 조직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우선 우리들은 중앙 은행 시 총지점 앞—대동교 앞까지의 도로 량 주변에 새로 2 개의 화단을 조성할 것과 시설물의 설치, 록화 원천 조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담당 구역의 청소 및 병해충 방지 사업을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후 도시를 원림화할 데 대한 내각 결정 제 40 호에 접한 우리들은 더욱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림화 사업에 한결같이 동원될 것을 결의하였다.

그래 우리는 매일 아침 좀 일찌기 나와 작업 착수전 시간을 리용하여 담당 구역을 청소 정리하며 점심 시간과 오후 퇴근 전 시간을 리용하여 화단에 물도 주며 정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꾸어 놓은 록지와 화단 등을 잘 관리하는 사업과 함께 사회 질서 유지 사업을 방조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우기나 사람들의 왕래가 심한 곳으로 하여 짓밟히우던 록지와 화단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앞으로 이미 계획한 대로 담당 구역내에 아름다운 2 개의 새로운 화단을 빠른 시일 내에 꾸려내려고 서두르고 있다.

조선 중앙 은행 평양시 총지점
초급 민청 단체 《록화 근위대》 대장

최 호길




리 기 영

### 5. 붉은 수첩

녀성 대원들이 조 옥희 영웅 돌격대를 조직한 동기는 당의 붉은 편지 정신에 근거한 대중적 혁신 운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상한 애국주의를 발현하자는데 있었다. 동시에 그들은 리 수복 영웅 돌격대에게 지지 말아야 하겠다는 경쟁적 심리가 작용한 것과 아울러, 자기의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돌격대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조 옥희 영웅 돌격대는 침교천 교량의 제 1호 교각 기초 굴착을 자체의 력량으로 담당할 것을 제의할 것과 침교천 다리 이름을 《〈조 옥희〉 영웅 철교》라고 할 것을 결정하고 상부에 제의하였더니 대대 지도부와 트레스트 본부에서는 그대로 하라는 승인을 하였다. 그것은 녀성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더한층 고무시켰다.

한데 그들은 새로운 난관에 부닥쳤다. 침교천의 하상은 모래 바닥이라 내'물을 돌려 놓고 교각 기초의 굴착을 하는 데도 물이 샘솟듯 차 올랐다.

교각 굴착이 늦어진 것은 대대장 고 국경의 고집으로 전반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제 1 중대장 리 종호는 벌써 언제부터 땅이 얼고 내'물이 적을 적에 굴착을 하는게 좋겠으니 뽐프와 기타 자재를 속히 주선해 달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었다. 그때 고 국경은 뭐라고 하였던가?

《트레스트에서 보내 주지 않는 것을 나더러 어떻게 구하란 말이요. 급하지도 않은데 덤비지 마시오.》 하고 도리어 화를 내였다. 그는 모든 것을 트레스트에다 떠밀고 트레스트에서 보내 주기만 앉아서 기다리라는 것이였다.

결국 그들은 구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자체 해결의 방도를 취하였다. 워낙 트레스트 본부에서는 5개 대대나 되는만큼 각 대대에다 일시에 모든 자재와 공구를 다 줄 수는 없는 일이였다.

전 숙희는 함흥 철도 관리국으로 올라 가서 발동기 한 대를 얻어 왔다. 그러자 최근에 트레스트에서 보내 준 것과 아울러 그들은 뽐프 네 개를 놓고 물을 펐다. 하건만 웅뎅이 안의 물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뽐프가 고장이 나서 물을 제대로 푸지 못할 때는 삽시간에 벌물이 불어나며 주위의 모래가 까뭉겨 내려 앉았다. 그러면 여태까지 파낸 것이 또 헛일이 되군 하였다.

이렇게 물과 싸우면서 녀성 돌격대원들은 기를 쓰고 물 웅뎅이를 파들어 갔다. 대대 지도부에서는 녀성들의 건강 상태를 념려하여 야간 작업과 수중 작업을 금지시켰다.

그 때 그들은 난처한 립장에 빠져서 어쨌으면 좋을는지 몰랐다. 조 옥희 영웅 돌격대원들은 그 날 밤에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먼저 전 숙희 대장이 말을 꺼냈다.

《동무들! 대대 지도부에서는 우리 녀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힘든 일을 말라고 금지하는데 물론 상부의 배려는 매우 고맙게 생각됩니다마는——아시다싶이 1 호 교각은 전체 공사를 우리 녀성들이 맡아 하겠다고 담당한 이상 어떻게 수중 굴착 작업은 하지 않고 남성 동무들에게만 맡길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이 떼여 맡은 본의도 없으려니와 조 옥희 영웅의 이름으로 다리의 명칭을 붙인다는 것도 의미가 없이 되겠는데 동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전 숙희의 말에 뒤'이어서

《대장 동무의 의견이 옳아요, 1 호 교각은 수중 굴착 작업까지 우리 녀성들의 손으로 전부 해야 합니다.》

하고 리 덕순 부대장이 그의 말을 지지하였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대대 지도부가 모르게스리 야간 작업을 할 수 있을가요?》

전 숙희 대장이 좌중을 돌아 보며 다시 물으니

《좋은 수가 있어요. 우리는 머리 꼬리를 틀어 올려서 모자 속에 감추고 제가끔 한 명씩 야간 작업에 나갑시다.》

《참, 그 수가 좋겠군!》

민 기순이가 이런 제의를 하자 그들은 제가끔 머리를 정수리에다 틀어 얹고 모자를 푹 눌러 써 보았다. 과연 그것은 언뜻 보아서 남자인지 녀자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려웠다. 왜냐 하면 작업복은 남녀 대원이 모두 똑같은 것을 입었기 때문에—.

《됐소. 그러나 우리는 작업중에 말은 하지 맙시다. 말을 했다가는 녀자의 본색이 탄로 날테니요.》

배 응월이가 령리하게 이런 제의를 하자

《참 그래야겠소, 야간 작업 중에는 결정적으로 벙어리가 됩시다.》

하는 리 덕순의 말에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유쾌히 웃었다.

밤이 이슥하였을 때 돌격대원들은 제가끔 머리를 틀어 얹어 캡을 눌러 쓰고는 뿔뿔이 현장으로 달려 나갔다.

그들은 이와 같이 야간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1호 교각의 수중 굴착 작업은 점점 더 곤난을 가져 왔다. 그것은 하상(河床)을 깊이 파들어 갈 수록 물은 점점 더 많이 솟아 나는데 밑 바닥을 파 내기는 물이 깊어서 더욱 더 어려웁게 되기 때문이였다.

그날 밤에 조 옥희 영웅 돌격대는 현장에서 우둥'불 모임을 열었다.

각 대대의 모든 돌격대들에서는 민청의 발기로 우둥'불 모임을 수시로 가졌다. 그것은 그들의 작업이 난관에 부닥쳤을 때 돌격대원들은 우둥'불 모임을 통하여 타개책을 강구하자는 것이였다.

지난 날 암담하던 일제 시기에 김 일성 항일 빨찌산이 치어든 혁명의 홰'불은 우리 인민들에게 해방의 희망을 안겨주고 3천리 강산에 서광을 비쳐 주지 않았던가? 그것은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불요 불굴의 투지를 불러 일으켰었다. 지금 녀성 돌격대원들은 활활 타오르는 화토'불 주위에 뺑 둘러 앉았다. 그들은 지난 날 항일 빨찌산들의 간고한 투쟁을 상징하는 우둥'불 모임을 회상하였다.

과연 항일 빨찌산들이 만난을 무릅쓰고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듯이 자기들도 현재의 난관을 돌파하고 작업을 추진시킬 수는 없을가?

《동무들! 우리들이 우둥'불 모임을 열은 것은 김 일성 원수를 수위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온갖 곤난을 극복하고 장기간에 걸친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한 그 혁명적 전통을 본받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항일 빨찌산들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붉은 사상과 조국 광복의 일념으로 결연히 나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겹겹과 곤난을 박차고 백두의 밀림 속과 만주의 광야에서 15개 성상을 하루와 같이 싸우면서 일제의 백만 대군을 이겨 내였습니다!

동무들! 항일 빨찌산들의 그와 같은 간고한 투쟁에 비교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다리를 가설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둘도 없는 생명을 바쳐 싸운 무수한 항일 빨찌산들과 애국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숙희는 잠시 말을 그치고 숨을 돌린 후에 다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동무들! 동무들은 저—돈화의 밀림 속에서 77일간이나 기아와 싸워가며 중환자인 혁명 동지의 생명을 구원해 준 김 명화 동무의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김 일성 원수의 지휘하에 있는 조선 인민 혁명군의 한 련대가 식량도 없이 달포 동안 행군을 하던 중 돈화의 밀림 속에서 휴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는 바로 1938년 이른 봄이였답니다.

이기저기에 우둥'불을 피워 놓고 전우들이 한 떼씩 뺑 둘러 앉았는데 련대장은 김 명화 동무한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김 명화 동무는 재봉대원이였다.)

〈…명화 동무! 비로 까데 동무의 병세가 매우 위중하게 되었소. 우리와 같이 건강한 몸으로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다리에 중상까지 입었건만 그 동무는 고통을 억지로 참아내고 있지 않소! 그것을 언제까지 참고 본단 말이요.〉

(비로 까데란 중국 동무의 별명인데 비가의 성을 가진 막내라는 뜻이였다.)

〈그 동무를 이 수림 속에서 안정시킵시다. 나는 김 명화 동무가 그렇게 해 줄 것을 믿소!〉

그 때 김 명화 동무는 서슴치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혁명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비로 까데를 맡겨 주십시오!〉

련대가 떠나기 전에 전우들은 초막을 꾸려 주고 저마다 남은 식량을 털어 내여서 강냉이 가루 두어 되와 딱성냥 두 가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련대장은 떠날 때에 김 명화 동무에게 열흘 동안만 견디여내면 돌아 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김 명화 동무는 전우들이 남겨 준 옥수수 가루를 숟가락으로 헤여 보았는데 모두 쉰 네 숟갈이더랍니다. 하루 세끼에 세 숟가락씩 치면 열흘에 서른 숟가락 20일이면 예순 숟가락이여야겠는데, 여섯 숟갈이 부족하였습니다. 물론 그 후부터 고난의 나날이 시작되었으며 명화 동무는 아침 일찍부터 이산 저산으로 돌아다니며 눈 속에 묻힌 묵은 잣송이를 주었다 합니다. 그리고 나무'잎, 풀'잎을 뜯었는데, 그것은 말라빠진 떡구 잎새, 취 잎새 같은 것이였습니다.

잣송이를 불에 구으면 잣알이 빠져 나오는데 그것을 끄내여서는 다시 볶아서 가루를 만든 것을 가지고 한끼에 두 숟갈씩과 한 숟가락이 채 못되는 옥수수 가루에다 버무려서 물 한 사발을 타면 그것이 곧 환자의 한 때 끼니로 되었습니다. 김 명화 동무는 마른 풀'잎들을 물에 불궈서 거기에 잣가루를 조금씩 넣어 먹었다 합니다.

동무들! 그러니 김 명화 동무의 고생이 얼마나 되였겠습니까?

날이 갈 수록 바닥에 떨어진 묵은 잣송이도 없어지고 인제는 높은 가지에 매달린 잣송이를 장'대로 따야만 되었는데 굶고 지칠 대로 지친 그는 힘이 없어서 죽을 기를 써야만 몇 송이씩 딸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돌아 오기로 약속한 련대는 스무날이 지나고 한 달이 되여 오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잣가루에 물을 타서 환자에게 먹인 후에 김 명화 동무는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초막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신발까지 해여져서 발싸개를 감고 다녔는데 기여 오를 힘도 없어서 언덕진 흙타기에 엎드린 채 주위를 둘러 보니까 한 10 메터 상거에 잣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잣송이가 달려 있



더랍니다. 눈이 매달린 잣송이는 장'대가 닿지 않아 생각다 못하여 그는 맨발로 나무를 타고 올랐습니다. 한길쯤 기어 오르니 손과 발이 와들와들 떨리고 눈 앞에 불꽃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허리띠에 찔렀던 장'대를 한 손으로 쳐들어서 잣송이를 후려쳤건만 워낙 힘이 약해서 잣송이는 몇 번을 맞았는 데도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그의 온 몸은 땀투성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두 눈이 아찔해지며 그는 금검사가 진 비탈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명화 동무는 기절을 했던 것입니다. — 어느 때나 되었는지 다시 눈을 뜨고 차츰 정신이 나서 상반신을 움직이려 했을 때 김 명화 동무는 깜짝 놀랬었습니다. 왼편 다리가 뜨끔하기에 살펴보니 군복 바지가랭이가 선지피로 흠씬 젖었더랍니다. 그리고 터진 머리에서도 피가 흐르더랍니다. 그 때 그는 자기까지 병신이 되면 어찌하나? 하는 근심이 되더랍니다. 몇 번이나 몸을 일으켜 세우려 애를 써 보았건만 그는 종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두 그루의 잣나무에서 떨군 잣 세 송이를 주어 가지고 초막으로 기어 내려 갔을 때는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살금살금 배밀이를 하여 초막 안으로 들어 가보니 비로 까떼는 두 눈을 감은 채 누웠더랍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한 빛이 떠 돌고 눈물 흔적이 있었습니다. 후에 알았지만 비로 까떼는 그 때 자기의 혀를 깨물었는데 그러나 워낙 힘이 없어서 혀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 명화 동무가 자기 때문에 갖은 고생을 하는 것이 더는 보기가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자살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잣 세 송이로 저녁 끼니를 마련한 김 명화 동무는 관솔불을 켜놓고 비로 까떼를 깨웠습니다. 김 명화 동무는 그에게 잣가루 미수 그릇을 내밀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서 자시오! 얼마나 시장했겠소.〉

하고 먹기를 권하였습니다. 비로 까떼는 잣 국물을 한참 들여다 보더니만

〈나만 자꾸 먹으면 어찌하라오, 절반씩 나누어 먹읍시다.〉

하고 잣 국물이 든 식기를 그의 앞으로 내밀면서 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데 그 때 김 명화 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합니다.

〈나는 별이 없으니 왜 없어요, 나는 저런 재만 먹어도 살 수 있으니 염려 말아요.〉

그는 중국말로 겨우 알아 들을 수 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로 까떼는 막무가내로 아니 먹더랍니다. 결국 잣국을 반 그릇을 사이에 놓고 그들은 오랜 시간을 보내였습니다. 그러다가 종당은 비로 까떼가 눈물을 먹음으며 그것을 먹었다는군요— 그렇게 그들은 두 달 17일 동안— 즉 77일 간을 동화의 수림 속에서 지내었다 합니다…

편대는 동화의 수림 속으로 77일 만에야 돌아 왔습니다. 그 동안에 편대도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며 원쑤들과 싸우느라고 늦었다 합니다.

동무들! 김 명화 동무는 얼마나 간고한 투쟁을 하였으며 중국의 혁명 동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희생성을 발휘함으로써 얼마나 고상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발휘하였습니까?

그런 힘이 대체 어데서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붉은 사상의 힘이었습니다. 당의 붉은 사상으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그는 동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서 헌신적으로 투쟁하였기 때문에 비록 만난이 중첩하였었지만 끝끝내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빛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김 명화 동무의 처지를 오늘 우리들과 대비하여 본다면 우리는 너무도 유리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당의 특별한 배려가 있고 인민 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열렬한 애국심과 혁명적 기백으로 투쟁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으며, 어떠한 난관이라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 하나를 못 놓는 데서야 어데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대원들은 모여 앉으면 한결 같이 재산 이야기와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우리와 같은 녀성으로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조 옥희 영웅의 뒤를 따르자고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처럼 조국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며 굴할 줄 모르는 애국 녀성이 되자!〉는 결의 밑에 조 옥희 영웅 돌격대를 조직해 줄 것을 상부에 제기하여 소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혁명 선배들과 같이 우리들도 붉은 사상으로 무장되고 대중적 영웅주의와 지혜를 발휘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돌격 대장 최 숙희가 이와 같이 열렬히 부르짖자 대원들은 모두 감동적 흥분을 격발시켰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부대장 리 덕순이 주먹을 쥐고 일어섰다.

〈그렇습니다. 나는 대장 동무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동무들 앞에 한 가지 말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열렬히 부르짖었다.

〈동무들! 내가 다섯살 먹었을 때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고향에서 혁명 활동을 하던 중에 왜놈 경찰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그후 왜놈 감옥에서 징역을 살다가 병보석으로 집에 나와 계시던 아버지는 사회주의 서적을 천장 속에 감추어 두고 날마다 꺼내 읽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천장에서 책을 꺼내어 읽으시면서 나더러는 밖에 있다가 순사놈들이 오거든 인차 알리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삯빨래를 하러 가고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동무들과…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만… 순사놈들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놈들은 집 안으로 달려 들자,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보더니만 살살이 집 뒤짐을 하여 있는 책을 몽땅 압수하고 그길로 아버지를 붙잡아 갔습니다. 그 때 놈들한테 끌려 가신 아버지는 그후 한 달만에 시체가… 되어 나왔습니다. 아!〉

덕순이는 말 끝을 채 마치지 못하고 손'등으로 눈물을 씻으며 흐느껴었다. 이 말을 듣은 돌격대원들은 모두다 간담이 주먹을 부르쥐었다.

어두운 밤 하늘 밑으로 우등'불을 활활 타오르는데, 최고현의 요란한 물소리가 더욱 긴장된 분위기를 주위에 몰아왔다. 산속한 찬 바람이 그들의 흥분된 얼굴을 스쳐갔다. 리 덕순은 억세한 가슴을 진정하고 나서 다시 하던 말을 이어갔다.

〈그 후에 우리 집이 어찌된 줄 아십니까? 나는 아버지의 이 원수를 갚아야 하겠습니다.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된 우리 모녀는 중국 동북 지방으로 떠나 갔었습니다. 아버지 친구의 주선으로 어느 농촌에서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항일 빨찌산 부대를 비밀히 도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친일 주구의 밀고로 그것이 드러나서 어머니도 왜놈들한테 불들려가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그 때 나의 오빠는 심양에서 철도 일'군으로 있었는데 역시 왜놈들에게 체포되어 고문 끝에 학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집안은 원수놈들의 박해로 인하여 모두다 원통하게 죽고 어린 나 혼자만 살아 남았었습니다. 그 때 내 나이는 어덟 살이였습니다.

나는 해방 후에 유자녀 학원을 졸업한 뒤에 조국으로 돌아 와서 철도 양성소에 입학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빠의 뒤를 이어서 나도 철도 일'군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며 이번에는 청년 철도 건설장으로 탄원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동무들! 지금 우리들이 놓는 이 철'길은 바로 공산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삼등—세포와 장하리—평산간 750리 상거의 이 동부선 철도가 개통되는 날에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이 높은 봉우리를 올라서서 공산주의 수령산을 바라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난관이 있드라도 기어코 돌파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반드시 극복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조 옥희 영웅의 모범을 따라서 다 같이 용감히 전진합시다!〉

리 덕순의 토론에 이어서 민 기순, 배 송월, 리 진숙 등 여러 대원들이 열렬히 토론에 참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돌격 대장 최 숙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하였다.

〈동무들은 모두 옳은 사상적 립장에서 토론들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론을 잘 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토론을 한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데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사업을 혁명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수령님을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 전통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이런 붉은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그는 붉은 표지로 만든 조그만 수첩을 꺼내어 쳐들어 보이면서 다시 하던 말을 잇대인다.

〈이 수첩은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전통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어떠한 애로와 난관에 부닥치드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감성과 대담성을 길러냄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는 즉 붉은 사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표본으로 삼자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동무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다면 나는 동무들도 제가끔 붉은 수첩을 만들어 가질 것을 제고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돌격대원들은 모두다 붉은 수첩을 만들어 가집시다.〉

전 대원의 찬성으로 조 옥희 영웅 돌격대는 붉은 수첩을 제가끔 만들어 가질 것을 결정하였다.

그후 붉은 수첩은 제 3 대대 전체 대원들이 다 가지게끔 되었다.

조 옥희 영웅 돌격대도 제가끔 붉은 수첩을 리용하며 집체적 토의를 거듭한 결과 교각 기초의 수중 굴착 작업에서 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창의 고안을 내 놓았다. 그것은 교각의 규격 대로 네모지게 세멘트 관통을 만들어서 교각 자리에 씌워 놓고 안팎으로 파 들어가니 세멘트 관통은 자체의 중량 때문에 내려 앉아서 걸음이 한결 스며나지 않았다. 통 안에 괴이는 물도 그전처럼 많지는 않았다.

거기에 남성 대원들이 천리마 기중기를 창안 제작해 줌 것을 큰 도움으로 되었다. 그것은 통 속에서 파내는 흙을 이 기중기의 도레박으로 순식간에 담아 올릴 수 있게 하였다.

이 두 가지의 창안 발명은 수중 굴착 작업에서 몇 배의 로력적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날 밤에 야간 수중 작업을 하다가 그만 리 준호 제 1 중대장에게 들키었다. 그것은 녀성 돌격대원들이 자꾸도 몰래 야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대대 민청 위원장에게 듣고 이날 밤에 그는 우정 현장에로 가만히 조사를 나왔었는데 파인 녀성 대원들이 끼워 있는게 그의 눈에 띄었다.

그 때 중대장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녀성 동무들은 이리 나오시오.〉

못들은 척하고 녀성 돌격대원들은 그냥 일을 계속하였다.

〈명령이요. 빨리들 나와요!〉

제 1 중대장이 호되게 추궁하는 바람에 그들은 마지 못하여 일'손을 떼고 한두 명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데 공교롭게도 그 때 마침 정전이 되어 불이 탁 꺼졌다. 주위는 별안간 캄캄 절벽이 되었다. 그들이 세멘트 관통에 몸을 걸치고 나오는 바람에 한편이 기울어지기 때문인지 별안간 관통이 쑥 들어가며 모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만일 관통이 아주 넘어지면 어데 수중 굴착을 한 것이 허사일 뿐만 아니라 또다시 시초로 돌아 가야 될 판이다. 정전이 되는 바람에 모타는 발동이 꺼졌고 물을 푸지 못하니 순식간에 통 안에는 물이 가

득 피여 오른다. 일은 매우 다급하게 되였다.

그 때 녀장군의 별명을 듣는 리 덕순 부대장이 선참으로 물 속에 뛰여 들며 큰 소리로 웨쳤다.

《동무들! 관통을 일으켜 세웁시다.》

어둠 속에서 전 숙희 대장을 위시하여 돌격대원들이 찬 물 속에로 너도 나도 뛰여 들어 갔다.

다른 대원들은 어느 틈에 등화를 준비하였다. 그들은 힘겊을 뭉치고 솜방맹이를 여러개 만들어서 기름에 배인 것을 홰'불로 켜들었다.

이 홰'불들은 세멘트 관통을 안팎에서 추실르는 현장을 밝게 비처 주었다.

중대장도 물 속에 뛰여 들어 가서 그들과 함께 운력을 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안팎으로 높은 바닥을 물 속에서 파내고 천신 만고한 끝에 마침내 관통을 균형이 잡히게 제대로 세워 놓았다. 그리고 전기의 고장을 고쳐서 발동기로 다시 물을 푸기 시작하였다.

새벽 추위에 강물은 얼어 들었다. 물 속에서 작업하는 그들의 몸은 오장까지 얼어 붙는 것 같았다. 나중에는 손과 발이 저리다 못하여 남의 살 같이 감각을 모르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힘과 지혜를 바치여 위기 일발에 처한 관통을 제대로 바로 세웠다. 그들은 정말 적과의 맹렬한 전투를 하듯이 30분간 돌격전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조 옥희 영웅 돌격대원들은 이와 같이 악전 고투를 계속하여 마침내는 교각 기초 굴착 공사를 계획대로 완공하였다. 그들은 그 우에다 교각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시간의 여가를 틈타서 다른 사업에도 열성껏 협조하였다.

제 3 대대에서도 당 력사 연구실을 침교리에다 짓게 되였을 때 녀성 돌격대원들은 굽벌 운동을 발기하여 나섰다.

그것은 굽벌처럼 부지런히 역사(役事)를 한다는 의미인데 작업 현장에서 돌아 올 때나 어데를 나갔다 들어 올 때는 자갈, 모래, 돌맹이 등——무엇이든지 반드시 가지고 와서 한 사람도 공걸음을 하지 말자는 것이였다. 그들이 이처럼 열성을 발휘하자 남자 대원들도 이에 고무되여 날마다 수백 명씩 달라 붙었다. 그들은 불과 일주일 이내에 아담한 집 한채를 지여 놓았다.

이 연구실에는 수령의 초상을 위시하여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한 력사적 문헌들을 전시하였다.

청년 건설자들은 휴식 시간에 수시로 이 연구실을 리용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당 력사 연구실에서 혁명 정신과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함양함으로써 자체의 교양 사업과 일상적 학습을 제고하였다.

## 6. 청춘의 열정

7형제 바위의 첫 발파를 성공하던 바로 그 이튿날 밤이였다.

쌀쌀한 강'바람이 불어 오는데 서천에 걸린 상현'달이 눈 쌓인 강반을 엷비치는 것은 더 한층 찬 기운을 풍기는 것 같다.

이날 초저녁에 대대 민청에서는 회의를 소집하였었다. 박 지성과 전 숙희는 모임이 파하자 단둘이 뒤'산 잔등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평탄한 바위'돌을 찾아가 앉았다.

《동무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전 숙희는 아까 민청 회의에서도 리 수복 영웅 돌격대의 어제 7형제 바위를 첫 발파한 것이 대성공한데 대하여 찬사를 올리고 그들의 모범을 따르자는 토론을 하였었지만 지금은 박 지성 개인에 대하여 치하의 인사를 조용히 하고 싶었던 것이다.

전 숙희가 박 지성과 처음 알게 되기는 지난 1월 1일 신년 축하를 하던 모임에서였다. 그날 녀성 대원들도 남성 대원들과 같이 축배를 들었으며 오락회에도 다같이 참가하였었다. 그리고 군중 무도를 하게 되였을 때 박 지성은 숙희에게 청하여 춤을 같이 추기도 하였다.

전 숙희는 그전부터 소문을 들어오던 박 지성의 활발한 성격과 소박성을 그의 언동에서 직접 보았다. 그는 대담성과 어려운 일에 앞장을 서는 헌신성이 강하다는데 청년 건설자로서 이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그러한 청년들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번에 7형제 바위의 발파 작업에서 박 지성은 돌격대원들과 같이 군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2.8절이 돌아 왔을 때 녀성 대원들은 남성 동무들에게 제가끔 소친대로 선물을 하였다.

전 숙희는 박 지성에게 칼라 두 개를 만들어다 주었다. 날이 갈 수록 그들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다.

박 지성은 또한 박 지성이 대로 전 숙희를 은근히 사모하게 되었다. 그는 전 숙희가 녀성 대원들 사이에 신망이 두터웁다는 것을 알게 되였으며 그가 아직 처녀라는 데 호기심이 끌리였던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들이 단둘이 호젓하게 만나기는 이날 밤이 처음이였다. 그것은 피차간 일이 바빠서 만날 기회가 없었던 까닭이였지만——

《어제 발파의 성공은 초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7형제 바위는 아직도 여섯 개나 남았으니까요.》

박 지성은 전 숙희의 축하하는 말에 이와 같이 겸손하게 대답하였다. 그는 기분이 매우 좋은 모양으로 활발한 동작을 가지였다.

《무슨 일이든지 첫 시작이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동무네의 어제 발파는 대성공일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와의 투쟁에서도 승리를 한 것이 더욱 통쾌하다고들 그리든데요.》

숙희는 상냥한 목소리로 대'구하며 웃는 얼굴을 쳐든다. 상기가 된 그의 얼굴은 달'빛에 해쓱해 보였다.

《하하… 하긴 그렇기도 합니다만——대대장 동지도 아마 인제는 우리 청년들의 힘을 믿게 되겠지요. 동무네 돌격대는 1호 교각 굴착의 수중 작업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지요?》

박 지성은 전 숙희의 옆 얼굴을 돌이켜 보며 이렇게 묻는데

《네! 지난 번에 우등'불 모임을 가진 뒤에 대원들의 집체적 창의 고안으로 세멘트 관통을 만들어 세우는데 성공하였어요.——그날 모임에서 우리 돌격대원들은 제가끔 붉은 수첩을 가질 것을 결의했었는데——보시겠어요? 이런 것이에요.》

하고 전 숙희는 품 속에서 붉은 표지로 만든 조그만 수첩 하나를 끄내는 것이였다.



《붉은 수첩을요?》

박 지성은 얼른 그것을 받아서 페지를 넘기며 들춰 보는 것이였다.

그 수첩의 첫 장에는 수령의 초상을 붙였고 그 다음에는 용진가, 적기가, 유격대 행진곡 등—혁명 가요를 써 넣었다. 박 지성은 다음 페지를 들추려 하는데

《건 보실 것 없어요!》

하고 숙희는 얼른 수첩을 뺏아 가며 방끗 웃는다.

《비밀인가요?》

박 지성은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무엇을 숨기는 것일가?…)

하고 생각하다가 역시 미소를 띠우며 이렇게 말하였다.

《음——이것은 우리 돌격대원들에게 더욱 필요하겠는데요.》

《그럼 하나 만들어 드릴가요?》

《아니 그만 두시오, 내가 자비로 만들지요.》

《어째 그러세요, 내가 만들어 주는게 싫으신가요?》

숙희는 약간 샐쭉한 눈치로 상대방을 쏘아 보며 가시가 돋힌 말로 묻는다.

《천만에—— 그럴리가 있나요. 난 동무가 작업에도 매우 바쁘겠는데 그런 것을 만들 짬이 없을 것 같아서……》

《아무리 바쁘기로서니 그만 것을 만들 여가야 없겠어요.》

《숙희 동무!》

별안간 박 지성은 숙희의 두 손목을 덥석 잡고 흔들었다.

《감사합니다.…… 지난 2. 8절에 선물을 받고서도 난 동무를 위하여 여적 아무 것도 답례를 못하였는데요… 변변친 않으나마 이 만년필을 받아 주시오.》

하고 그는 조고만 만년필 한 개를 품 속에서 끄내여 준다.

《아니에요, 내게도 있어요.》

전 숙희가 굳이 사양하려 하니

《받으시오. 내가 군대에 있을 때에 중국 지원군 동지한테서 선물로 받은 건데 이 만년필은 남자용이라기보다도 녀자용으로 된 것 같소.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 만년필은 어떤 녀성 동무 한테 주자고 마음 먹었었는데 여태까지 나에게는 그런 녀성 동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금 동무에게 드리는 것이니 그런 줄 아시오.》

하고 박 지성은 의미 있는 미소를 띠우며 강권한다.

《아이 그럼 더구나……난 받을 수 없지 않아요.》

《왜요?… 나는 동무를 가장 가까운 동지로 사귀고 싶은데요. 자— 받으시오.》

《그럼 받겠어요.》

전 숙희는 마지 못하여 그 만년필을 받았다.

손 안에 만져지는 만년필의 촉감! 그것은 전기와 같이 찌르르 느껴지는 무엇이 있었다.

그들은 잠시 침묵을 지키였다. 물건은 사람의 마음을 이끈다. 그래 옛날 사람들도 축물 의이(逐物意移)라고 하지 않았던가! 더구나 친한 사이에 정표를 주고 받는 것은 비록 그것이 하찮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피차에 잊을 수 없는 친애의 감정과 깊은 인상을 남기게 하는 법이다.

사실 박 지성은 2. 8절에 숙희에게서 흰 칼라(襟) 두 개를 받았을 때 얼마나 속으로 기뻐하였던가? 그리고 그 칼라를 바꿔 댈 때나 또한 더러워진 칼라를 비누로 빨때 마다 그는 남몰래 애틋한 정을 느끼였다. 그는 칼라를 자주 빨고 싶지 않았다. 왜?… 자주 빨면 쉬 해여질 것이며 해여지면 내버려야 하겠기 때문에—

하다면 지금 박 지성이가 숙희에게 만년필을 주고 싶어서 준 것도 그와 같은 심정에서가 아닐가?…즉 숙희도 이 만년필을 쓸 때마다 자기를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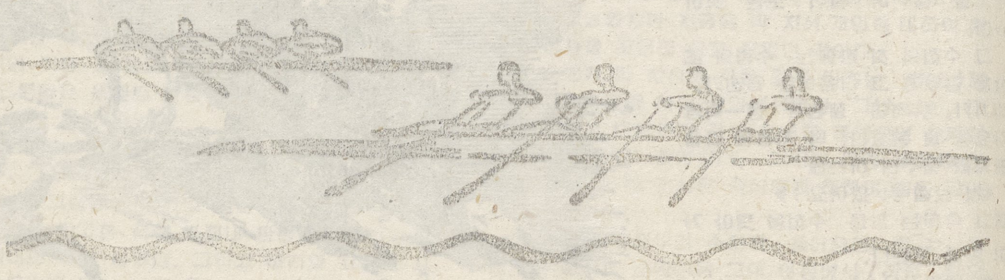
그들은 잠시 침묵을 지키였다.

침교천에서 얼음 밑으로 흐르는 시내'물 소리가 쫄! 쫄! 쫄! 야밤의 정적을 깨친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실내악을 듣는 것과 같은 안익한 분위기를 자아 내였다.… 침묵! 그것은 행복한 순간이였다! 왜냐 하면 이런 때의 침묵은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며 가슴 속으로 남몰래 사랑을 하소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호에 계속)

해양 체육 지식

# 단정 훈련



지금 우리 나라의 바다와 강, 호수들에서는 해양 체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양 체육에는 단정 훈련, 요트 훈련, 수영, 해상 유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광범히 보급되고 있는 것은 단정 훈련이다. 그러면 단정 훈련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해상 단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동 단정과 《요》 단정으로 구분된다. 《요》 단정은 그의 구조와 사용 용도에 따라 《요》 단정과 《로》 단정으로 구분되며 《로》 단정은 우리 나라에서 흔히 리용되는 걸바위과 《가이로》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요》 단정은 구조상 특성과 용도 또는 가 《요》의 수에 따라 대형 단정, 구명정, 단좌식 단정, 소형 단정, 경기용 단정 등으로 구분된다.

대형 단정은 14~22짜리의 요를 가진 큰 단정이다. 대형 단정은 견고하게 만든, 배로서 주로 중화물과 음료수 및 목재 등을 운반하는데 리용된다. 이 단정에는 요의 수에다 2를 합한 인원이 탈 수 있다. 구명정은 대형 단정보다 더 간단하며 그의 내력도 약하다.

요의 수는 10~16 개이며 체육과 스포츠 목적에도 리용되지만 주되는 사명은 인명 구조에 있다. 이 단정의 정원은 대형 단정의 정원과 같다.

단좌식 단정은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가볍고 폭이 좁다. 그러나 다른 단정보다 비교적 빠르다. 이 단정은 4~8 개의 요를 가지고 있으며 한 좌석에 1 명씩 앉게 되어 있는 것이 다른 단정보다 특수하다. 이 단정에는 련락용과 구명용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명용은 련락용 단정보다 구조상 견고하며 량현측에 공기통이 설치되여 있다. 단정의 크기와 《요》의 수는 련락용과 같다. 이 단정의 정원은 요의 수에다 1을 합한 수이다.

소형 단정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단정이다.

소형 단정의 《요》는 2~6 개이다. 단정의 형태는 대형 단정과 류사하며 구조상 약할 뿐만 아니라 작게 만들어져 있다. 소형 단정의 정원은 요의 수에다 2를 합한 수이나 긴급할 때에는 한 《요》에 2 명씩을 더 태울 수 있다.

요단정의 준비는 요를 배치한 다음 요를 저을 때에 호상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잡이의 길이를 30 센치 이하로 되게 자른다. 그 후에 매 요수가 자기의 요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정미 우현측의 요부터 순서로 요판과 요축에 번호를 (로마수'자) 새긴 데다 우현 요는 록색, 좌현 요는 홍색으로 채색한다. 이와 같이 요들이 준비된 다음에는 요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판과 요축에 구멍을 뚫고 연을 부어 넣은 다음 요축에 감긴 뎨떼 부분을 《요가》에 걸고 요판이 물에 가라 앉는 정도로 요의 균형을 잡는다. 이와 같이 요를 준비한 다음 발 받치개를 준비한다. 발 받치개는 《요》를 저을 때에 힘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단정이 급속도로 항해할 때 요판이 수압에 의하여 잘 뽑히지 않는 경우에 요수가 물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게 된다.

다음으로 요수들의 정확한 배치는 원거리 항해에 있어서의 요수들의 피곤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단정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 단정에 요수들을 정확히 배치하기 위하여서는 제일 건강한 요수를 정미 좌석에 배치하고 단정이 도착할 때에 삭 작업과 기타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요수를 정수 좌석에 배치하며 중간 좌석에는 보통 요수들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정에 오를 때에는 맨 처음에 정미 요수부터 오르고 다음에 중간 요수, 정수 요수의 순서로 오르고 마감에 단정장과 책임자가 탄다. 내릴 때는 단정장과 책임자가 먼저 내리고 다음에 정수 요수, 정미 요수 순서로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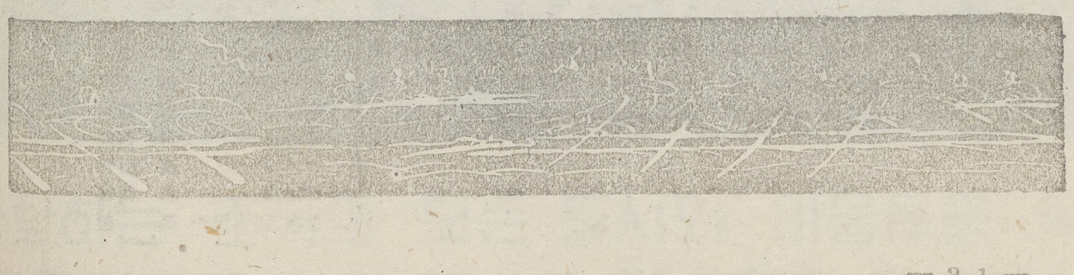
요를 저을 때에는 손에 물을 묻히지 말아야 하며 앉을 때에는 웃주름이 잡히지 않게 앉아야 한다. (살이 부르튼다) 요를 저을 때에는 몸과 팔을 동시에 뒤로 제꼈다 앞으로 엎드렸다 하면서 저어야만 오랜 시간을 저어 갈 수 있으며 피곤을 덜게 할 수 있다. 이때 단정장은 정미 좌석의 우측에 앉는다. 요수들의 출발 준비가 끝나면 단정장은 《출발 준비》의 구령을 준다. 그러면 요수들은 드랍뿌를 걷우고 계류삭들을 풀어 놓는다. 이때 정수 요수들은 사'대로 젓을 밀 준비를 한다. 다음에 배를 떼기 위해서 《정수 밀엇》 혹은 《좌우 현측 밀엇》 구령을 하달한다. 이때 요수들은 앉은 자리에서 지정된 현측을 밀어 배를 뗀다. 다음 단정장은 《요 준비》 구령을 준다. 이 구령에 의해 요수들은 안쪽에 있는 손으로 요의 손잡이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요축을 쥐면서 수평 상태로 요의 중간 허리를 《요가》에 건다. 휴식을 할 때는 《요 세웟》 구령으로 휴식한다. 단정이 부두 및 잔교 가까이에 접근할 때와 요수들의 고패를 알리기 위해서는 《요 그만》 구령을 준다. 이 구령이 하달되면 요수들은 요 젓기를 그만 두고 요판이 수면과 수평으로 되게 하며 《요 준비》 자세로 들어간다. 부두에 들어갈 때 단정의 속도를 감소시키며 요를 걷기 위하여서는 《요 걷우엇》 구령을 하달한다. 이때 요수들은 요를 요가로부터 뽑아 요판은 정수에 향하게 하며 손잡이는 정미에 향하게 하여 요를 눕힌다.

요 젓기 동작과 훈련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요 훈련 동작 방법에는 3동작 훈련과 2동작 훈련이 있다. 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3동작 훈련을 실시하고 숙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2동작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3동작 훈련 방법은《하나》와《셋》구령은 짧게 하고《둘》구령은 길게 한다. 하나 구령의 동작은 요판을 수평 상태로 움직이고 뒤로 가져가며, 량팔과 몸은 동시에 앞으로 간다. 요판은 45도 각도로 하여 요판 면적의 $\frac{1}{3}$~$\frac{1}{2}$ 정도로 물 속에 잠근다. 《둘》 구령에서의 동작은 팔을 편 채로 요판의 $\frac{1}{3}$ 정도로 물 속에 잠그고 요를 물 속에서 천천히 당긴다.

《셋》 구령에서의 동작은 요판을 정수쪽 (45도)으로 향하게 하여 물에서 떼낸다. 이와 같은 동작 방법을 반복하여 실시한다.

2 동작 훈련 방법에서도 동작은 3 동작 훈련시와 같은 동작을 한다. 다만 다른 것은 《하나》 《둘》 하는 구령을 길게 하며 《하나 구령에서 3 동작에서의 《하나》 《셋》 구령의 동작을 동시에 하게 된다.

단정 훈련은 청년들의 육체 단련과 조국 보위에 큰 도움을 주는 해양 체육이다. 이 밖에도 단정은 그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어업을 위한 사명과 유희 및 유람용 등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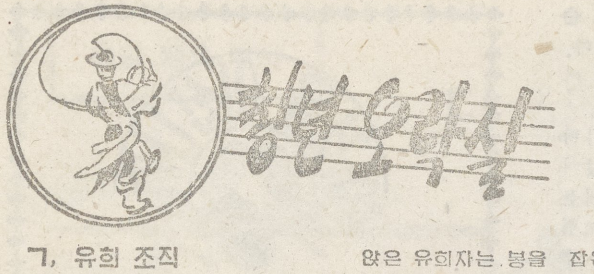


## 이것을 아십니까?

### 우리 나라 바다에는 어떤 어족들이 있는가?

우리 나라 바다에는 520 여 종의 어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산업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어류들이 10 여 종이나 된다.

우리 나라 동해안에는 명태, 고등어, 정어리, 가재미, 이면수, 청어, 민어, 멸치, 대구, 도루묵어, 도미, 농어, 숭어, 방어, 연어, 송어, 공치, 보가지, 망챙이, 횟대어, 황어, 빙어 등 어류들이 있고 서해안에는 조기, 갈치 숭어, 농어, 가재미, 상어, 장대, 민어, 복어, 강달어, 평갈 고등어, 보가지, 까나리, 은어, 빙어, 떡이, 홍어 등 산업적 의의가 큰 어류들이 있다.



## 협동 놀이 (스포츠 유희)

**ㄱ, 유희 조직**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두 편으로 나누고 매 편을 다시 3인조로 나눈다.

**ㄴ,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

1, 유희장은 그림과 같다.

2, 유희자들은 출발선을 향하여 종대로 위치한다.

3, 2 메터 길이로 되는 나무봉 3 개씩을 각편 앞에 놓는다.

**ㄷ, 유희 방법**

1, 지도자의 《준비》 구령에 의하여 각편 선두 유희자들은 대기 장소에 정렬한다.

2, 다음 신호에 의하여 3 명의 유희자들 중 2 명은 봉을 그림과 같이 잡으며 한 명의 유희자는 그 우에 올라 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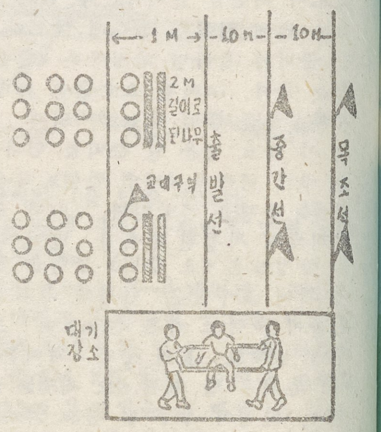
3, 다음 신호에 의하여 앞으로 달려나가 중간선을 넘자 속히 우에 앉은 유희자는 봉을 잡은 선두 유희자와 교대하여 계속 앞으로 달려가 목표선에 도착하면 봉 우에 앉은 유희자와 봉 뒤를 잡은 유희자가 서로 교대하여 중간선까지 돌아온다. 이때에 봉 우에 앉은 유희자는 속히 내리여 봉 앞을 쥔 유희자를 업고 한 명의 유희자는 두 개의 나무봉을 쥐고 교대 구역을 향하여 달려가 다음 유희자에게 인계한다.

**ㄹ, 승패**

이와 같이 유희를 계속하여 먼저 끝난 편이 승리한다.

**ㅁ, 지도상의 주의**

인계는 정확히 교대 구역 내에서 해야 하며 유희가 끝난 유희자들은 자기 줄 뒤에 정렬시켜야 한다.




### (현상 문제)

### 이것은 어느 작품의 한 구절인가?

① 사랑은 가는 손목에 아니라
생활을 틀어 잡음에 있다.
사랑은 높은 젖가슴도
별 같은 눈매도 아니다.
사랑은 그 뿌리를
참된 인생의 봄에 두었다.
봄이 없을진대
어찌 높은 사랑이 있으랴!

② 《나의 어머니 조국이여! 부디 잘 있으라! 비록 조국에서 수천리 이곳 북만에서 죽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조국의 품 속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최후의 순간에도 나의 상념은 오직 조국으로만 한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조국이여! 나는 그대를 자랑합니다. 나의 위대한 조국이여! 공산당이여! 나는 그대의 동요할 줄 모르는 아들을 자랑합니다.

공산주의! 이것은 바로 세계의 청춘입니다. 공산주의! 이것은 바로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키워내는 요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웃으면서 죽습니다.》

### —6호 현상 문제 해답—

**《도시 구경》의 해답**

다음과 같은 코스를 통과하여 구경하면 된다.

—ㄱ, ㄴ, ㄷ, ㅇ, ㅌ, ㄹ, ㅁ, ㅈ, ㅁ, ㅂ, ㅅ, ㄴ, ㅇ, ㄹ, ㅈ, ㅅ, ㅇ, ㅈ, ㅂ, ㄱ, ㅅ,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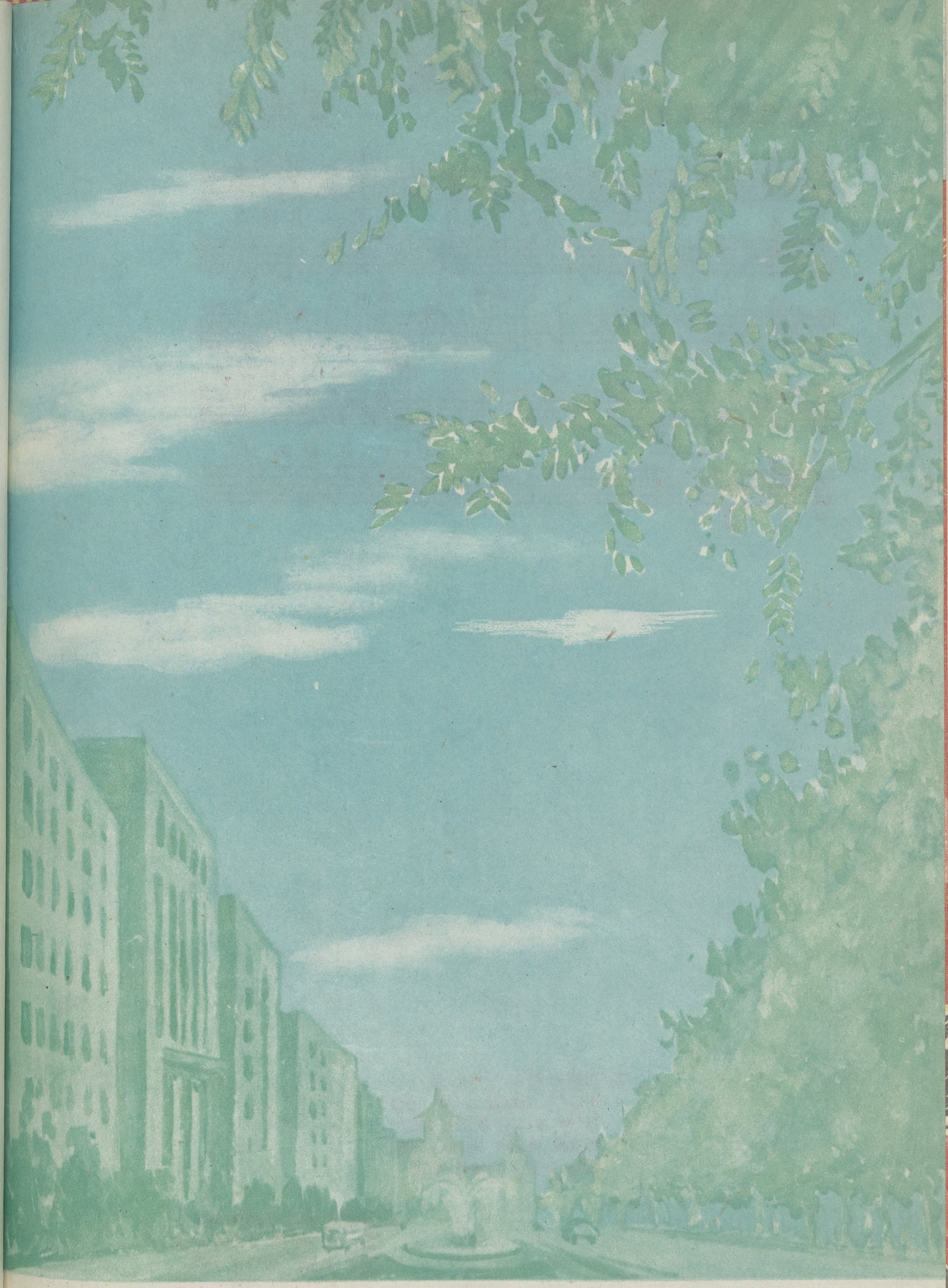
《이것은 어느 작품의 한 구절입니까?》의 해답.

1, 조 기천 작 장편 서사시 《백두산》, 2, 《혁명을 위하여》 (1)에 수록된 《영원한 생명》.

**당선자들**

| | |
|---|---|
| 함남도— | 김 영보 |
| 강원도— | 리 근보 |
| 황북도— | 곽 홍세 |
| 함북도— | 리 종락 |
| 평북도— | 리 재도 |
| 량강도— | 강 민한 |
| 평남도— | 손 락규 |
| 평양시— | 최 택원 |
| 조선 인민군— | 런 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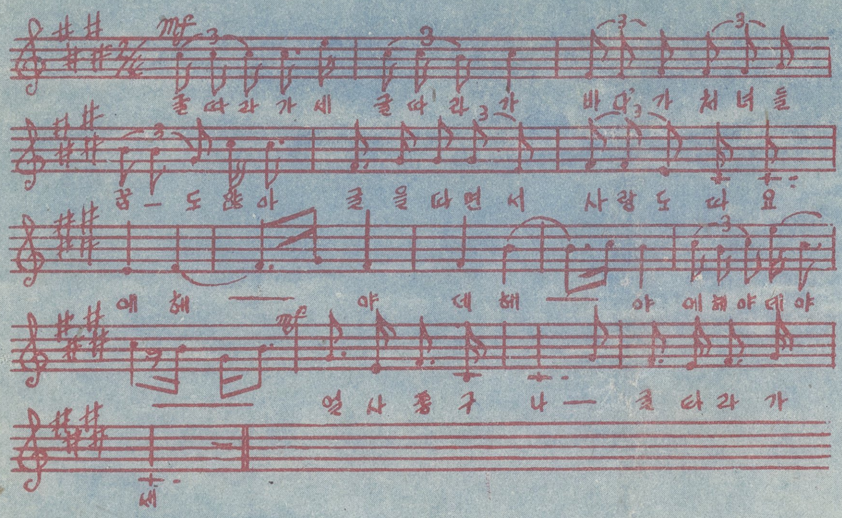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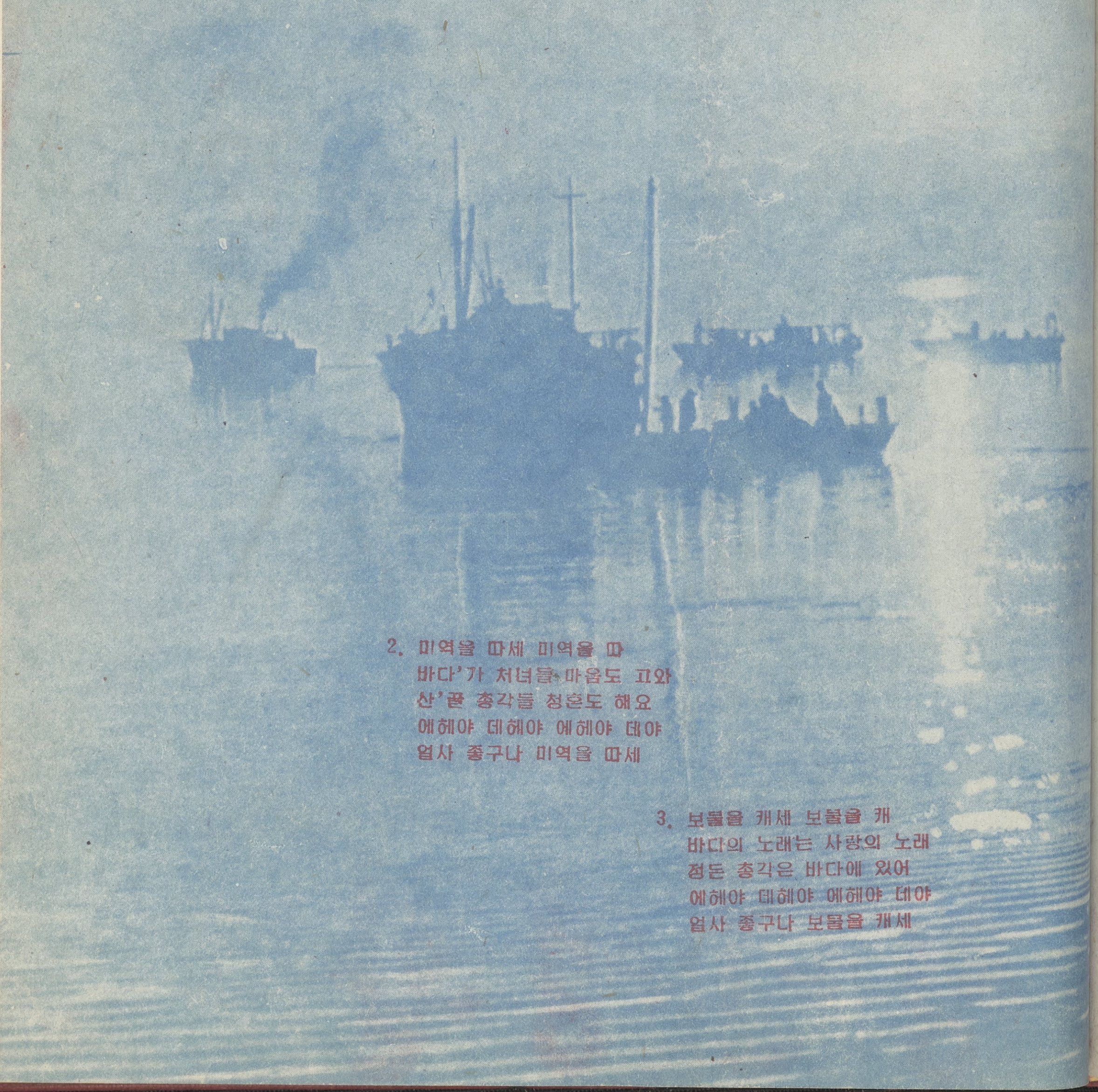
사랑하는 조국의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록음 우거지고 백화 만발한 락원으로 만들자!

# 바다'가 처녀

약간 빠르게 그리고 명랑하게

리맥 시
윤승진 곡



2. 미역을 따세 미역을 따
바다'가 처녀들 마음도 고와
산'골 총각들 청혼도 해요
에헤야 데헤야 에헤야 데야
얼사 좋구나 미역을 따세

3. 보물을 캐세 보물을 캐
바다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
젊은 총각은 바다에 있어
에헤야 데헤야 에헤야 데야
얼사 좋구나 보물을 캐세